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내 몸이 이런 거는 부모한테 타고 나서 그렇지 싶어. 만날 원망한다야.
 주위에 사람들 다 봐도 나같이 이런 사람 없고. 내 아파도 보기는 멀쩡하지,
 아프다 소리 절대 남 듣는 데 안 한다. 애들도 지장이 많다 아깝니까.
 결혼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요즘은 안 그래도 얼마나 따지는데,
 그러니 일체 아프다 소리 부모형제 외에는 안 하고.
 처음에 아플 때는 이런 생각도 안했는데 안 낫으니까,
 갈수록 더 하고 안 낫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는, 이게 피폭 탓이구나.....

한국원폭2세 환우 증언록
 한국원폭2세환우들의 살아온 이야기



TESTIMONY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원폭2세 환우 증언록

이 증언록은故 김형울님의 용기에 힘입어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삶을 솔직히 드러내게 된 한국 원폭2세 환우들의 것이다. 천형(天刑)으로 받아들이던 자신들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대해 다가서고자 하는 작은 시도이다.

우리는 이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통해 한 인간이 온전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자극히 당연한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들을 계속 이대로 살도록 내팽겨 쳐둔 채, 나의 삶은 보다 나은 것이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들 그리고 이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입으로는 일제청산이나 과거청산을 외치지만,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바라보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며 외치는 공허한 외침에만 익숙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았으면 한다.

이 증언록을
한국원폭2세환우분들에게 드립니다

내게 내 남에게

이 증언록과 양상면에서 드립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원폭2세 환우 증언록

발행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발행일 2006년 1월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3-9

전 화 051-818-4749

E-mail sopra21@korea.com

Homepage <http://www.sopra21.org>

- 본 증언록은 2005년 5·18재단의 민주·인권·평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원폭2세 환우 증언록

■ 여는글 ■

함께 부르는 노래

정귀순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정정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사무국장)

고백컨대 우리가 한국의 원폭2세환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 청년을 만나면서부터였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과 바삭 마른 몸, 그러나 환한 미소와 빛나는 눈을 가진 청년 김형울님은 온 몸으로 뿜어내는 열정으로 자신의 삶, 피폭 1세 어머니를 둔 한국의 원폭2세환우의 고통스런 삶의 현실을 얘기해주었다. 이 땅에 함께 살면서도 1년의 몇 달씩을 병원에서 지내면서 온전한 삶을 기대할 수 없음도, 그와 같은 2세들의 병이 명백히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한국과 일본정부 모두 그 어떤 원폭의 유전적 후유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그리하여 지금까지 한국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도 그를 통해서 알았다.

그렇게 우리의 지난 역사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대를 이어 고통을 물려주고 있고, 부모는 죄인의 심정으로 자식을 부둥켜안고 울부짖고 자식은 그 부모를 원망하며 살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삶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거나 보살피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자신의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한국의 원폭2세환우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홀로 아픈 몸을 끌고 서울로, 합천으로, 일본으로 동분서주 하던 이 청년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맞아야 했다. 지난 5월 29일, 34살의 청년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김형울님은 아버지의 품에서 그의 간절한 바람을 남겨둔 채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가 힘겹게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이제 살아남은 이들의 몫이 되었다.

이 증언록은 故 김형울님의 용기에 힘입어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삶을 솔직히 드러내게 된 한국의 원폭2세 환우들의 것이다. 천형(天刑)으로 받아들여던 자신들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대해 다가서고자 하는 작은 시도이다.

우리는 이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통해 한 인간이 온전한 삶을 누리 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들을 계속 이대로 살도록 내팽겨 쳐둔 채, 나의 삶은 보다 나은 것이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들 그리고 이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입으로는 일제청산이나 과거청산을 외치지만,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바라보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며 외치는 공허한 외침에만 익숙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았으면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의 당사자였던 일본정부도,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원폭의 유전적 후유증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과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국가적인 만행이었음을 밝혀줌으로써 천형과도 같았

던 굴레를 벗겨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 정기국회에 제정운동을 벌였고 앞으로 계속 벌어나가야 할, 한국의 원폭피해자들과 원폭2세환우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실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원폭2세환우들의 증언록이 그 운동의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증언록은 비록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온 몸으로 삶을 밀어 나온 故 김형울님과 원폭2세환우분들의 것이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더 충실한 내용으로 다듬지 못해 아쉽지만, 다음에 더 나은 기록들이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그 덩던 지난 여름 긴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누어 주신 원폭2세환우분들, 그리고 부산과 합천을 오가며 인터뷰 작업과 정리 작업에 참여해 주신 신윤수님, 사진작업을 해주신 정종희님, 합천 현지조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심진태 지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차례 Contents

여 / 는 / 글

- 05 정귀순 · 정정수 함께 부르는 노래

시 / 론

- 10 전진성 한국원폭2세환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증 / 언

- 16 김동희

모든 살아가는데 자신이 떨어진다고

- 28 문택주 · 문종주

돈 뭐할 건데? 병을 낫아줘야 돼

- 38 백효순

우리 딸이 더 클 때까지 지금 이대로라고 살고 싶어요

- 50 서정희

내 아픈 거는 괜찮은데 아들이 또 아프니까

- 60 손점도

우리 자식들이 내 닳아서 아프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파

- 76 이수자

요즘 와서는 혹시 원폭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 92 정숙희

내 죽거든 뼈도 화장도 하지 말고 쓰레기 봉지 넣어 내버려라

- 106 조명자

진짜, 아픈 게 겁이 나. 살아가는게

삶은 계속 되어야 한다

- 114 최정식

정부에서 약이라도 제대로 지어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132 한정순

2세 환우들에게도 1세분들과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목 / 소 / 리

- 154 강주성 증언록 발간에 부치는 글

- 157 김봉대 (故 김형울님의 부친) 우리 아들 영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 160 심진태 원폭피해자는 죽음으로만 가야 하는가?

- 163 조석현故김형울형을 생각하며

유 / 고

- 166 故김형울 한국원폭2세환우란?

후 / 기

- 172 신명기 2세환우분들을 만나고 오던 길

참 / 고 / 자 / 료

- 176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한국원폭2세환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진성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회원)

“한국 원폭(原爆) 2세 환우(患友)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잔혹한 침략전쟁의 희생자들이며 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해방 후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원폭 2세 환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 20세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침략전쟁과 식민지 수탈정책이라는 광기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연장되어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한국 원폭2세 환우회(韓國 原爆二世 患友會)”를 이끄시던 고(故) 김형울 회장님의 증언이다. 그는 2005년 5월 29일 34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증언 당시 김형울님은 원폭후유증(선천성면역글로불린결핍증)을 앓고 있었으며 폐렴 증세로 이미 수십 차례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폐 기능의 80%를 잃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침략전쟁과 식민지 수탈정책이라는 광기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그간 TV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이들 희생자는 대부분 경상남도 합천과 경기도 평택에서 건너간 사람들로 일제 수탈에 따른 경제적 곤궁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전시의 강제부역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생존자의 대부분은 귀향했으나 고국으로부터 아무런 의료적, 경제적, 정신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질병과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살아왔다.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일제 과거가 한국사회에 남긴 상흔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이슈나 사회 정의, 또는 역사적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인간 생존을 위해 가장 본원적인 조건을 이루는 ‘몸’과 관련된다. 김형울 회장님의 증언처럼, 원폭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 고스란히 재생된다. ‘광기의 역사’는 역사적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2세, 3세의 ‘몸’에 생생하게 현존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원폭2세환우의 존재야말로 원폭피해자의 문제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아직 1세의 문제도 해결이 않된 마당에 왜 성급히 2세를 운운하는가? 더욱이 2세 중에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데 자칫 이들이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게 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본서에도 증언되어 있듯이, 실제로 적지 않은 원폭2세환우들이 건강한 가족들의 피해를 염려하여 자신의 처지를 공개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이는 마땅한 염려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권의식의 한대지역에 속한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건네기는커녕 억압하고, 차별하며, 심지어는 이용하려고까지드는 이 잔혹한 사회 풍토에서 과연 원폭피해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오래도

록 숨죽이고 살아온 이들을 과연 소극적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원폭2세환우들의 고통을 공론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만의 고독한 투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각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어쩌면 진정한 시민사회적 윤리를 확립하는 일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폭2세환우의 문제는 광복 60주년을 맞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이른바 '과거사 청산'이란 소란스런 정치적 이벤트나 거창한 기념행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런 삶을 살아온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환우의 '몸' 앞에서는 어떠한 화려한 정치적 '언사'도 다 거짓이다.

본서는 한국원폭2세환우들의 생생한 육성을 여과없이 담았다. 이들이 차마 앞에 나서서 토로하지 못했던 그간의 삶과 고통, 그리고 희망의 편린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일은 바로 이처럼 이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확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개개의 생명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를 감싸 안을만한 마음이 없으면서, 원폭피해자의 문제를 쉽사리 이데올로기화하거나 아니면 학문적 실적을 챙기는데 이용하려는 태도는 마땅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원폭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환우 자신들의 의지와 더불어 사회와 국가가 모두 발 벗고 나설 때만이 비로소 기대될 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 법률적, 도덕적, 역사적 차원의 성찰과 실천이 총체적으로 요구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의료적 지원이다. 날로 악화되는 원폭피해자들의 건강은 면밀한 조사와 법적 공방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순수한 인권적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의료원호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고 김형욱 회장이 생전에 제안한 바 있던 "선지원 후규명"의 해법은 여전

히 설득력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처럼 국립 원폭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폭 피해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이 사회의 정의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본서에 실린, 환우들의 다음과 같은 정당한 호소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것보다도, 다만 진료권이라도 있으면 우리도 아플 때 병원가서 혜택볼 수 있는 그 여건이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만약 이와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호소들마저 묵살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다.



증·언
한국원폭2세환우들의 살아온 이야기



모든 살아가는데 자신이 떨어진다고

김 동 희

2005년 6월 29일 김동희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김동희 씨는 현재 51세로 독신이며 1992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에 재수술을 받아야했다. 모친(박임선)이 피폭자이고, 2남 5녀 중 셋째이다.

조카 김재은 양(9세)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골 부전증으로 투병중이다. 김재은 양의 부모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보았으나 사정상 응할 수 없어 김동희 씨의 구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태어날 때 좀 강하게 태어나지

저는 어릴 때 머리가 잘 아팠어요. 땀 하니 빈혈 같은 거라면서, 하여튼 어렸을 때 내 기억하는데 그때 시골에서 클 때 내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굶을 하더라고. 그렇게 머리가 어지러움이 많았어. 나가면 핑 돌고 했던, 그거는 지금도 내가 기억나지.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애가 그러니까 굶을 하고.

이후로도 아팠던 게 저는 많아요. 이야기를 다 해도 되나요? 큰 수술을 했는데?

유방 쪽으로 수술을 했는데 서른 몇 살 땐가, 92년도에 했으니까 10년 넘었죠? 수술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몸이 안 좋았었고, 계속 안 좋지, 뭐.

몸이 계속 탈이 나지. 갑상선도 안 좋다 하고 위가 안 좋고 하여튼 다 안 좋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유방 수술을 또 했어요. 작년에 딱 지금 이만 때라. 6월 달에 했는데 잘못 돼가지고 7월 달에 재수술 또 했고, 결국 작년 한 해 동안 수술을 두 번 했더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서 끓아 터진 거지. 6월 1일 날 병원에 갔었는데 집에 와서 한달 좀 더 있다가 병원에 가서 20일 있었지. 20일 있다가 집에 나와 가지고 또 한 20일 있었나, 보름 있었나? 그랬는데 상처가 끓아가지고 다시 또 상처를 치료 받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다시 수술을 했어,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딱 일 년째 난다, 지금.

그렇게 큰 수술 받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병원 생활을 좀 많이 한 거지. 유방은 92년도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수술 들어갔고, 갑상선은 수술은 안 했어요. 처음에는 가니까 무조건 수술하라 하더라고. 그래 검사를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약 먹고 있어요. 위장도 위궤양으로 약 먹다가 지금은 대장도 안 좋고. 장이 안 좋으니까 배가 내내 아파. 그 약도 한달 먹었어. 지금은 그때처럼은 안 아파도 그래도 가끔씩 배가 잘 아파. 큰 검사를 안 해봤어.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검사를 받는다는 게, 병원 가는 게 안 쉽고 마음 먹고 가야 되고. 병원 가는 거 안 좋아하잖아, 아무도. 대개 급하니까 별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고 미루고 있지.

현재는 그래서 수술한 거 계속 치료 받고 갑상선 약 먹고 있고. 병원은 다달이 가지는 않는데 한번 가면 몇 십만 원씩 깨져요. 그러니 치료비도 그렇고 병원 가는 거 자체도 꺼려지고, 생활이 아주 여유만만하고 이러면 건강 쪽으로 신경을 기울이는데 살다보면 여유가 안 될 때는 거기에 몰두하다보며는 그런 문제를 잊고, 잠시 순간적으로 잊지. 몸이 많이 불편하며

는 진짜 급해가지고 가지마는 조금 그럴 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몸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알면서도 못 하고, 생활이 그러다보니…….

작년에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나오면 아무 것도 안 하고 건강관리만 해야지, 했는데 또 안 그래. 나오면 또 안 그래. 사는 게 안 그렇다하니. 경제적 여유가 아주 넉넉하게 되며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지 뭐. 사는 게 고생이지. 시간 많고 돈 있고 하면 병원도 자주 가보면 좋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살다보며는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병원은 뒷전이지.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살다보며는 대개 다급해야 병원에 가고 그렇지.

수술하고 나서 좀 좋아졌는가, 그런 것도 모르겠어. 원래 내 같은 경우는 아프고 이런 증세가 아니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지. 처음 수술 할 때는 세월이 오래가며는 재발이 없다 하고 재수술하러 갔을 때도 이런 경우가 드문데 하더라고. 그런데 결국 재수술을 했으니까 말도 못하지, 너무 너무 안 좋지, 모든 게.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한가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약했는가, 그런 마음도 들고. 모든 기능이 약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소화기능도 약하고, 자궁도, 몸이 전부 다 약하대. 태어날 때 좀 강하게 태어나지,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튼튼하게 태어나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한 편이라. 그러니 여기저기 전부 탈이 나지.

내 아픈 가족

형제들 뭐 건강 안 하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조금조금 안 좋은 건 있어.

남동생이 아들로서 만인데, 개도 항상 안 좋아요. 속이 항상 안 좋고 몸이 전부 약해. 둘째 언니도 그렇고. 우리 남동생 같은 경우는 위가 안 좋다

고 봐야지. 항상 밥을 먹으면 소화기능이 안 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안 좋아요. 병원에도 그것 때문에 자주 가고 그랬어. 둘째 언니나 남동생이 나, 그러가지고 약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위가 안 좋으니까 제 약을 먹다가 동생 주기도 하고. 개가 요 앞전에도 시골에 약 하러 가고 이러더라고. 침이 좋다면서 침을 구해와가지고 먹고 이러대. 많이 안 좋은가봐. 위장 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 뭐 등이 아프다던가 어깨가 아프다던가 하면서 엄마가 건강치료를 우리 집에 놔뒀는데 그걸 좀 가져간다하면서 가져갔어. 그렇게 몸이 안 좋아. 사실 저도 어깨가 엄청 아팠거든요.

우리 재은이, 걸음마도 못 해봤어

조카들은 아직 어리니까 어디 아프다 하는걸 대개는 잘 모르는데, 재은이가 안 좋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남동생 딸래미가 또 좀 안 좋고, 언니 딸래미도 안 좋았지.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 수술 했어. 나이도 어렸는데 폐를 하나 수술했어. 하나를 들어냈지 싶어. 지금도 스물 몇 살 밖에 안 됐는데 수술한 지가 오래 됐어.

재은이는 다리가 안 좋아요. 뼈가 이래 잘 부러져요. 그러가지고 엄청 병원에서 생활 많이 했어. 우리 재은이 많이 아팠어. 지금도 안 좋잖아요. 그래 지금 장애 등급이 나왔어. 1급은 아니고 하여튼 장애 몇 급 그게 나왔어요.

서울에 요 앞전에 가서, 서울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고 진주 가셔도 했고 대구 여기서도 했는데. 진주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서울 가가지고 그래 서울 따라갔는가 그래요.

재은이는 고생을 많이 했어. 아픈 쪽으로 자꾸 이야기 하니 나 눈물 날라 그런다. 재은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개 생각을 하면 눈물 날라 그래. 재

은이가 태어날 때부터 좀…….

병원에서는 그러던데, 몰라, 병원하고도 우리는 많이 부딪혔거든. 그때 애기 낳아놓고 황달이라 해가지고 병원에 며칠 놔두고 엄마는 집에 왔는데 애기를 일주일 있다가 데리고 가라 해서 데리러 갔는데 애 다리가 부러졌다 하니까. 우리는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그래 우리가 간호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따졌어.

그때부터 기부스를 했다니까. 집에 오지도 못하고. 금방 태어난 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고생이 말도 못한다. 개 생각하면 고마 눈물이 난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기부스를 했으니 뭐 이래 좀 뛰어놀지도 못하고, 학교도 올해 학교 들어갔는가 그래. 아홉 살인데 올해 넣었을 거라. 그동안 학교도 못가고 유치원 같은 데도 못가고 맨날 집에서 혼자 놀고.

걸음 걷는 자체가 어려워. 다리를 절뚝거리지. 병원에서 기부스를 하도 하니까. 처음에는 다리가 그냥 약간, 걸음으로 표도 별로 없었는데 약간 절뚝거리었는데 갈수록 더해. 병원에서 기부스로 뼈를 붙이다가 뭐가 잘못 됐는가 옆으로 불거지고 여기가 툭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더 잘 못 된 것 같애. 그래 지금은 다리가 많이 표가 난다. 한쪽이 많이 짧다.

왜 그런가 원인이야 모르지. 처음에 병원하고 우리하고 다뤘는데, 우리는 병원에 의료사고다, 간호사들이 잘못해서 혹시 애를 떨어뜨린 거 아니냐 하니까, 병원에 교수는 선천적이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냥 가만있어도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그래도 그냥 부러지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래 애가 뛰어놀다가 뭐 잡는다고 하다가 좀 이러면 툭 넘어져가지고 툭 부러지고 또 툭 부러지고 계속…….

걸음마도 못했다니까. 이래 걸음 걷는 이런 것도 못 해봤어요. 발자국 떴는 것도 못해보고. 이래 이래 뛰는 거, 애들 다리 힘 올리는 그런 것도

한번 못해봤다니까. 애들 크며는 왜 걸음마 하고 이러잖아. 그런 거 안 해 봤어. 내내 기부스를 해가지고. 좀 그러면 부러지고 부러지고 이래놓으니 내내 유아용 거기에 끌고 다니고 보행기에 태워 다니고. 그래 어째 나중에 커가지고 저절로 그냥 걷는 거는 건대. 어릴 때는 그런 거 해보지도 못했어.

치료비야 전부 가정에서 부담하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개네 부모가. 재은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어. 그래 형제들이 조금조금 보태주고 계속 병원 다녔지 뭐. 수술 많이 했어요. 기부스하고 수술하고…….

차도는 모르겠어. 결국 지금 장애등급이 나왔으니까. 고생 많이 했어, 태어날 때부터. 어린 게 저도 안다니까.

자식이니까 무심해서

엄마는 올해 나이가 칠십 얼마고. 나이도 모르겠다. 일본서 피폭 당할 때는 외가가 전부 당했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이야기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달달이 나오는 그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갑다, 이랬지. 요번에도 일본 갔다 오셨잖아. 엄마 건강은 맨날 다리가 아프고 뭐 안 좋은데,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우리는 자식이니까 예사로 아픈 갑다 이래 생각을 했지. 확실히 몰라. 원래 그렇잖아, 부모가 안 좋다 해도 자식이니까 조금 무심한 데가 많지. 부모들 같으면 자식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아는데 자식이니까 부모가 아프다 해도 예사로 좀 안 좋은 갑다 그러고. 지금은 다리가 많이 편찮으시지. 위도 저번에 뭐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입원은 그냥 옛날에 기관지 쪽으로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좀 있었던 거, 그러고는 없었어. 다리 수술하라 하는 거는 계속 안 해왔고. 수술하고 결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그러며는 했을 건데 확실치 않으니까 안 했어요. 계속 몇 년 동안 약만 먹지.

돈 드는 그런 것도 있고. 돈이 아주 경제적 여유가 되며는 시원스럽게 좋은 병원에 가서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여유가 되질 않으니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좋아지려나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것도 있었지.

살아가기,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지

지금은 고깃집 이거 근근히 하고 있는데 수입도 없어요. 적자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직장 생활 했죠. 수술 전이었는데 그 때도 몸이 좀 안 좋았지. 항상 피로가 많이 오고, 그래하면서도 다녔는데 그게 너무 과로하다가 이렇게 수술까지 하게 됐는지도 싶고. 과로를 안 하고 좀 편하게 살면 나왔을 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며는 그 쪽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항상 피곤했지. 몸이 나른하니 안 좋았어요. 직장 그만 둔 거는 수술 전이지만 그때도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지금도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건 많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여유상 못하고 있고. 건강이 너무 안 좋거든. 자고 나면 통통 붓고. 신장도 안 좋은가봐. 그냥 운동 요가 같은 거, 시간 여유 많으며는 하고 싶는데 항상 쫓기니까.

친구들 만나는 모임도 있었는데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 뒤로는 안 나갔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말은 차마 못하고 빠지고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안 나갔고. 아프고 수술한 거 주위에 아는 사람만 알지. 작년에 병원 갔을 때는 아무한테 말도 안 했어요. 내 안 좋은 걸 이야기 해서 좋은 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굳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이야기도 안 했다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형제들만 아니까 병원에도 형제들이나 찾아오고 이랬지.

전에는 엄마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분가해서 있는데, 사는 게 어려워진다고 해서 친구 누구 하나 도움을 주겠노,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제들은 진짜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조금씩 하겠지, 진짜 아니었을 때는 형제들 밖에 더 있겠어요? 다들 살기가 빠듯하지마는.

재은이 아팠을 때도 마음은 있는데 많이들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병원비 정도, 너무나 어려우니까 다만 몇 십만 원 씩이라도 보태주면 조금이나 안 낫겠나 싶어서 자기 성의표시대로 해가지고 해 준거지. 일단 병원 치료비가 몇 백만 원 목돈이 들어가니까. 누가 많이 해줄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라도 크게 해줄 건데 그런 사람도 없고 그냥 형제간 성의로 조금씩 보태준 거거지.

내 수술할 때는 전부 의료보험 해가지고 내가 혼자 부담했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죠. 말할 수 없지. 사람이 일 못하지, 누워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깨지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거 같지, 그랬을 때는.

내 몸이 아픈 거, 암만해도 형제들한테 부담이겠지

내 아플 때 엄마한테 사소한 아픈 얘기는 걱정한다고 이야기 안하고 싶어요. 내가 아파서 엄마가 고생도 많이 하셨지. 전에는 엄마가 다 했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다 수발하고. 작년에는 올 엄마가 니만 아니며는, 하면서 자기 아픈 거는 감각도 없고 살겠는데 이려고…… 엄마가 자기 몸도 안 좋는데, 병원에 수발하면서 엄마도 검진 받고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맘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병원서 내내 엄마가 내 옆에 수발하셨지. 집에 와서도 그랬고. 고통 받는 거를 보니까, 부모가 자식이 고통 받는 거 보니 참 힘들지. 니만 좀 나오면, 나오면, 했지. 그게 부모 마음이지.

형제들도 다 마음이 안 좋지. 왜 그렇노, 이러면서. 젊은 애들이 왜 그래 아프노 하면서 마음이 항상 안 좋지, 뭐. 다 건강하게 살고 이러면 좋는데

아프다 하니까 안 좋지. 우리 형제들끼리 나누지, 핏줄이니까. 남들은 모르잖아.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만 마음을 나누는 거지. 형제들이 나를 많이 애연해 하고 항상 전화하며 몸조심해라, 이런 거를 하지, 옆에서.

내 몸이 아픈 거, 암만해도 형제들한테 부담이겠지. 마음으로 전부 다 그걸 주잖아. 일단 내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은 못 있잖아. 마음이 안 편하잖아. 내가 안 아팠으면 이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살아가는데 추가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나 때문에…… 그래도 병원에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해도 형제들 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안하고 좀 그런 게 있어.

피폭, 그리고 피폭이 결정지은 내 삶의 미래에 대하여

다른 원폭 2세대들과 연락이나 그런 건 전혀 안 해봤어요. 그냥 합천에서 누구더라? 나는 이름도 몰라요, 엄마가 아는데. 누구 부장님으로 인해서 연락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봤어요. 그 분이 연락해주셔서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떼서 오라 하고 그래 엄마가 다 해줬죠. 내가 직접 2세대들을 만난 적은 없어요. 뭐 특별히 안 만나겠다 하는 거 보다도, 그냥 내 살다보니까. 2세대 만남이 있다는 자체도 몰랐고. 그냥 서류 보내가지고 명단이 올라갔다 하는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는가, 그것만 알았지. 우리들끼리 모임이 있다는 그런 거는 몰랐지. 앞으로도 그런 데 나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좀 2세까지라도 많이 도움을 줬으면 싶어요. 병원 갔을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부에서 해주고, 제발 그런 것 좀 했으면, 바람이지. 진짜로 그 바람이 제일 먼저 앞세워.

일본 정부도 우리가 이래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에 피해 입었는 걸 보상을 좀 더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물질적인 보상, 지금으로

서는 어려우니까 그게 먼저 앞서요.

원폭피해자 특별법을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몰랐는데. 그런 게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되는 거 같으면 좋은데 해도 안 되는 걸 움직여야 된다 하면 그건 어렵지 않겠나, 지금에서는. 어렵다며는 그렇게 애달게 할 것 까지야, 될 가능성도 없다며는.

법이 된다 하면 제발 2세대 살아가는데 지금 엄마가 받는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좀 우리까지 넘어왔으면 그 바람이 있고. 다른 거야 뭐 특별히 해주겠어요?

지금까지야 원폭 그거 모르고 살았는데 엄마가 진짜 그 피해자로서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몸이 안 좋고 이래 살아왔는데…… 몇 년 전에야 생각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안했어요. 우리가 조용하게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면 옛날 얘기 이런저런 말을 할 건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얘기 잘 못해요. 엄마한테 깊은 얘기도 못 들어봤고. 하여튼 고생했다 하는 거, 그때 참 막 너무 그랬다 하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는 나는 들은 기억이 없어. 이제 지금은 내가 묻고 싶지, 그때 어떻게 어떻게? 워낙 궁금하니깐 묻고 싶지. 내 이래 아픈데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돈이라도…… 아닌가요?

빨리 2세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욕심인지. 일본에 좀 더 받고 싶다, 좀 더 뜯어내고 싶다 하는 그거지. 너무 억울한 점이 많았잖아요. 그걸 지금은 일단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돈 있으면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이것 저것 다 하고 맘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기만 하지. 몸이 우선 지금 정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살아가는데 자신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남들 같지 않고. 물론 정신적으로 하는 건 다 되지만 그래도 안 그래요. 보통사람들 같지 않고, 그 심정이 참 말할 심정이지. 그런데 이제 돈이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서 좀 더 낫지 않겠나, 요즘은 그래요. 다른 거 보다도, 돈 있으면…… 아닌가요?

마지막 단락의 소제목을 처음엔 -더 버릴 것도 없는 욕심- 이라 붙였다가 지우고 그냥 김동희 씨의 목소리를 따서 실었다.

‘……아닌가요?’ 라고 쓸쓸히 던져 묻던 김동희 씨의 얼굴이 지금도 서늘하게 뇌리를 스친다.

더 버릴 것이 없는 자, 더는 바랄 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이 짓는 표정은 그런 것일까.

조카 재은 양을 이야기하면서는 눈물을 보였으나 정작 자신에 대한 부분에서 삭막할만큼 담담했던 김동희 씨를, ‘돈 있으면…… 아닌가요?’ 라는 말 끝에 실려오던 그 감당 못할 감정의 무게를, 내가 지면을 통해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돈 뭐할 건데? 병을 낫아줘야 돼

문택주 · 문종주

2005년 6월 18일 합천 자택에서 문택주 씨, 어머니, 동생 문종주 씨와 설문을 진행했다.

택주 씨 본인은 귀가 거의 안 들리는 데다 정신 질환 까지 있어서 설문 내용엔 거의 어머니와 동생의 구술로 채워졌다. 택주 씨는 올해 54세로 부인과 사별하고 현재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피폭자는 돌아가신 부친(문홍수)이다. 현재 가족이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주 씨는 어려서부터 거의 들을 수 없었고 20세가 되어가면서 시력마저 잃게 됐다. 현재는 당뇨까지 겹쳐 치료중이다. 형제는 2남 2녀였으나 장녀는 암으로 사망했고 택주 씨와 동생 종주 씨를 포함한 형제들이 모두 건강에 문제를 안고 있다. 피폭자 부친은 강제 징용으로 일본에 갔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망, 현재까지도 택주 씨 가족은 어떤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다.

첫 아들, 택주

귀는 날 때부터 어둡었어. 농을 때부터 어림하이 어둡어. 그래도 병원은 생각도 못했지. 그 때는 젊고 뭐, 귀 어둔 거 예사 그렇는가 여기고. 이 집

에 이사 오면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배급을 타묵는데 그 때는 이사 오기 전이라 배급도 없었고, 병원비가 어디 있어.

눈은 이십 살 안에는, 하기가 그 때도 정상은 아니라. 그나마 허름하게 보였지. 그러고는 시력이 가버린 거라.

귀 어둡고 눈 어름해도 열 서너 땃살 까지 내쳐 녀의 집 머슴을 살았어요. 나락 서 너말, 그것도 많다고 받고 그리 일을 다녔어요. 그 때는 할매 계시제, 애들 오글오글 있게, 안 그러면 우찌 살겠는교. 그 몸으로 녀의 일 하면서 주인한테 꾸중 많이 들었지. 그 때부터 눈이 안 좋드만 갈수록 더 한 거라. 나중에는 아예 뭐, 눈이 어둔데 우찌 일을 하겠습니까.

-조선에서 그리 좋던 영감이

환갑년에 죽었네요. 우리 영감도 징병 안 가고 조선서 젊을 때는 나락 업고 사람이 그리 좋대요. 세월이 조지니 내 한이 맺혀 말도 못하네요. 그 당시 남자 명색은 집에 못 잤어요, 내 젊을 때. 산에서 숨고 밤에 내려오고, 결국 징병으로 끌려갔지.

(왼쪽으로)화상 입었던 말이 맞아. 몸이 현 데가 많아 보지도 못해요. 물이 찢긋찢긋 나고. 수족을 못 썼어, 다리가 오그라져 퍼지도 못하고.

딴 사람은 다 나왔는데 엄청 늦게 나왔어. 일본에 우리 동생 있는데 거기 들어가 조리를 했다 해. 아무 갈 데도 없고.

막내 그제 즈그 아버지 아플 때 다리 주물러 주고, (영감은)한 삼년 고생하다 죽었네요.

나는 장사 다니느라고. 하도 없이 살아서 이고 지고 다니고. 식구들 묵고 살 땅 한 패기 없지, 손끝으로 묵고 사는데 모두 녀의 집살이, 옛날에 머슴살이 했어요. 그때 내 신세는 연년이 흥년지고 보릿고개라. 지금 사람들은 모르네, 부자네요 모두 다, 지금 세월 따라.

영감은 생전에 치료도 못 받았고. 생각하면 잘 죽었지, 살면 뭐…….

건강수첩이라 하는 것도 없었어요. 몰랐다는 거지. 몰라, 뭐 책자 같은 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뜯어내버리는 게 일이고 해서. 아무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 모두 등신같이 이래 놓으니.

-아들의 병

당뇨도 몰랐더니 수치가 엄청 높으대. 요새 많이 좋아졌네요. 하루에 알약 한 개씩 묵네요, 앞전에 두 개씩 묵다가. 먹으니까 당뇨도 좀 그만한 거 같은데, 모르지.

눈은 못 낮아. 당뇨가 와서 몸살이 나니 눈알도 별경대요. 그래 안약을 사 놓으니 눈알도 삭아지대. 밝지는 않아도 안약 사니까 낮고. 요즘은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갑니다.

치료비는 요즘은 생활보호자라 돈은 안 주는데 귀가 낡을 때부터 어두워도 그 때는 생활보호자도 아니고 요새 같이 왼쪽 조사도 없었고 해서 병원도 못 가봤네요.

아픈 거는 타고 났지. 눈 어둡지, 귀 어둡지. 즈그 아버지 그래 놓으니 내림인 줄 알고 안 있습니까. 전부 테레비 보니 병신만 나대요, 왼쪽된 사람은. 생때같은 사람이 거기 다녀오고는 몸이 좋은 사람이 없대요. 사진을 보니 참 기가 차서, 물릴 데도 없고. 이거 어데 참 한을 풀꼬. 뿔이뿔이 그래도 눈 어둔 게 제일 불쌍네, 못 보니까. 귀 어둔 건 차라리 괜찮네요. 눈으로 봐야 살지. 반찬도 내가 더듬어 주고. 어디 갈 때는 보호자 데리고 안 다니나. 딱 데리고 다녀요, 내 손을 잡고, 와 저러꼬요. 내 죽고 나면 낭패네요. 저거 어데 돌꼬. 누가 거천하겠노. 내 죽고나면 누가 거천하겠노, 내 살면서는 데리고 있지마는.

-먹고살기

학교도 안나왔어, 우리 애들은. 학교도 못 시켰어. 그때는 참 없는 집에 시집가가 옛날에는 보릿고개 흉년도 들지. 학교는 문 앞에도 안 갔어.

내가 딸 둘, 아들 둘 뒀는데 큰 딸은 위암으로 두 번 수술하드만 삼년 전에 죽어버렸고. 아들딸 낳아놓고 끝도 못보고 불쌍하게 그만 가버렸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공을 알고, 에이고…….

서울로 멀리 치운 막내딸도 몸이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허리 아파 일도 못해요. 가만 집에서 논다. 머스마 공부시키고 할라면 같이 벌어도 사니 못사니 하는데, 도시는. 나도 기가 차네요. 요새는 젊은 놈이 맞벌어 먹고 살아야 되지, 남자만 벌어 우찌 묵고 살아. 답답네요.

없는 거는 모르고 (자식들이) 학교 못 시켰다고 저리 원망하네.

내 대가리 이어다가 장사로 묵고 살았고. 나도 일을 너무 해서 골병이 들어 내 몸을 쓰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이고 다니고 고생한 거. 너무 없는 집 시집갈 것도 아니라, 영감쟁이가 못 벌어놓으니.

지금도 어렵지요. 돈도 없네요. 배급 타먹고 안 사는교. 농사 한 때기도 없고. 한달에 안 굶어 죽을치 만치 돈이 나오네요. (작은 아들도)몸이 안 좋아서 일 못하고, 아무 돈 벌어들 사람도 없지요.

-지 자숙 어데로 내버려?

자식이라도 사이가 좋기는 뭐 좋아요, 답답해 살지요. (택주가) 화 풀 데는 없고, 귀가 어두워서 성질은 급하고. 등신이 성내면 난 새파라니 죽네요.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네. 다 두들겨 부숴버려. 그래도 지 자숙인데 우짜는교?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나지. 나는 이해를 하지요, 어디 화 풀 데도 없고 엄마한테 만만하니.

아들 형제 사이도 안 좋아요. 내가 이해하라 해도 안 되네요. 독하게도

못 지내요. 성한 사람이 참아야 되지, 저저(택주) 나는 젓혀 놔버렸어. 나도 말도 못해, 당한 걸.

3년 전인가, 나를 두들겨 패가지고 손에 잡히면 다 부서지고 했는데 손사가 어찌 알았는고 차로 잡으러 와버렸어요. 고려병원에 두 번 갔다가 정신병원에 넣었어. 마당이 별경고 천지 다 두들겨 부수고, 장독 다 부수고…… 병명이랄 것도 없어요. 마음이 좀 약간 돌아, 약 먹이고 몇 달 있다 왔어요. 넣어놓고 보니 작은 아들은 돈 벌러 갔지, 내 혼자 밥도 먹기 싫고, 울음을…… 싸움을 즐겨도 지 자숙 어데로 내버려? 있는 게 나아요. 잠은 안 오고, 내가 그만 몇 달 있다 데리고 나와 버렸어. 집에 데리고 오면 몇 달까진 괜찮아. 몇 달 지나면 그만 도지는 거라.

요새는 내가 교회 다니네요. 몸부림 치다가 속으로 기도하네요. 교회 다니니까 좀 맘이 편하고. 집구석 산산조각 난 거 말도 못 하지요. 성나면 천지 뭐 다 집어 던져 버리는데.

-울도 못하고 짓도 못하고, 내 원을 못 풀어 한이 맺히네

눈이 어두워서 친구가 있나, 봉사들 글 배우는 데 가면 그제 낙이지. 장구도 배우고. 저 합천 읍내에 배우는 데가 있네요. 점심 주고 새참 주고. 봉사 더듬어 점 찍어 놓은 거, 기억 나은 적을 수 있는 거 배우는 거라. 거기 친구들도 뭐, 지 혼자 알아 하고 안 씨부려. 등신, 친구도 없네요.

환우 모임은 지가 나가지는 않고 내가 자꾸 데리고 다녔어, 복지회관에. 지가 환우 모임을 하고 싶어해도 눈 어두운데 우찌 하노. 작은 아들은 우리가 모임 나가는 것도 싫어하네요. 넘 부끄럽다고 절대로 같이 안 다니고.

(택주한테)제일 필요한 거는 돈, 돈은 뭐 일전이라도, 용돈 모아가 알뜰해. 쓸 줄도 모르면서 빌려주라 해도 안주고. 돈 가지고 논 산다고, 눈이

포은이 저서. 십만원이면 사는 줄 아네요, 백만원도 모르고. 모아서 모아
서.

한국 정부에 바라는 거? 이적까지 살았는데 뭐. 하도 조사만, 조사
만……. 내 여기 이사 오고 조사 많이 했는데 헛일 했어요. 조사는 많이 해
가도 하나도 뭐 달라지는 거 없고. 이적지 살았는데, 바라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 양식을 사흘 굶어봤네요, 애 낳고. 입에서 비린내가 나대. 쓰러져
버렸어, 배고파서 식구대로. 배급 받아도 안 되는 거라. 내 고생 말도 못
해, 자식도 몰라요.

하기는, 내 집에 못 데리고 있네요.(택주를) 지금도 자꾸 합천 고려병원
넣으라고, 등신이라고. 그래도 자식을 어찌, 자식을 키워봐야지. 자식을
차마 못 그러겠대요. 자식을 우째 거기 쳐넣어놓고, 가둬놓고 잠 편히 자
고 밥이 넘어가는고.

그러니 (정부가)병만 낫아주면 좋다 안 합니까. 돈 뭐할 건데? 병을 낫아
줘야 돼. 병을 우찌 낫을고. 몸이 건강해야 되지. 돈 해서 뭐 할 거고, 살림
해서 뭐 할 거고. 몸이 튼튼하니 눈도 밝고 해야 사람이 활동하고 사는 맛
이 있지.

봉사지, 자식들이 전부 성한 게 없는데, 한이 맺혀 원이 맺혀 풀 데도 없
고. 내가 속이 갑갑하네요. 울도 못하고 짓도 못하고. 울면 운다고 (자식들
이) 지랄할 거고. 인제 눈물도 안 나네요. 내 원을 못 풀어 한이 맺히네. 자
식이라고 낳은 거 하나라도 성해야지, 전부 병신이라.

와 이런 일이 내한테 밀려왔을고. (원폭 2세는)전신에 사대 병신만 나오
대. 사진에 나오는데 전신에 병신이대. 나만 그런가 했더니 사진을 보니
얼척없데, 얼척없어. 내 억울하네요. 뱀이 한 거 같으면 잡아 직이고 싶구
만.

나는 할 말이 꼭 차서 말로 못하겠습니다.

동생, 종주씨의 원망

-한참 클 성장기에 아버님 그리고 형까지 저래 돼버리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살이 다 허물어졌어요. 상처도 안 났는데 살이 허
물어져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자탄 터질 당시에 화
상을 입어서 죽다 살았다고. 일본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를 맞고 있다가 그 당시 북해도로 쫓겨 가느냐 마느냐 하면서 숨어 다녔다
대요. 조선사람 걸렸다 하면, 마. 그래 나올 적에도 밀수 배를 타고 밤에
나왔답니다. 나오고 나니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 몸 그런데
다가 눈까지 어두워놓으니 동네 애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내가 봐도 밖에
나가 쟁피해서 힘을 못 쓰겠더라고.

내가 알기로 여기서 일본 갔다 온 사람, 일본서 돈 타먹는 사람들 있었
거든요. 그 당시 내 보기는 그 사람들 배운 것도 많고 일본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라. 당시에 자발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본에 많이 갔다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타먹고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서 살았다는 증거
가 있어놓으니. 우리는, 그 때 나도 어리고 하니 아무 것도 몰랐다고. 어떻
게 하면 돈을 탄다 하는 그런 말도 없었고. 강제적으로 잡혀 간 사람은 아
무 혜택도 못보고 자발적으로 일본 가서 살다가 해방 후에 나온 사람들은
돈을 타 먹고, 참, 다 그런 사람들이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릴 적에 마산서 범태평양동지회 영수증
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뿐이고 일본서 소지품이라고 사진이며
뭐 왔던데 어려서 몰라가지고 내가 버려 버렸는 거라.

내 살아오는 동안 어디서 타격을 많이 받았냐 하면, 한참 클 성장기에
아버님 그렇지, 거기다 형까지 저래 돼버리니 내가 거기서 핏김에 돈도 많
이 써버렸고. 집에 가 봐도 누가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도 없고, 가보니 형

또 말도 되도 안하는 잔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속으로야 형이 많이 안됐지요. 내가 참 화가 나 말은 그래 해도 그 래도 형인데.

- 형도 저 오는 거 싫어하지요

클 때는 녀의 소나 먹여주고 그래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객지 나가 생활하다가 뭐 노상 하는 일은 노가다였지요. 그것도 몸이 안 좋아지니까, 눈이 나도 이래 나빠져 버리니 스스로 짜증이 나고 해서 다 그만뒀고요. 지금은 그냥 집에 있습니다. 결혼도 안했어요.

형은 자기 몸 안 좋으면 막 짜증을 내는데, 형제간이지만 형은 한번 성질내면 상종을 못 합니다. 말이라도 똑바로 하면……. 다 집어 던져버리고, 형도 저 오는 거 싫어하지요. 그래도 일단 내가, 형이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꼬셔보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 되도 안한 소리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떠들어버리니, 내가 마 그럴 때는 참 죽으면 싶기도 하지요. 나도 앞이 잘 안보이지만 형은 안 보인다고 막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나도 원폭의 피해자로서

원폭 환우 모임에는, 제가 일하러 다닌다고 딱 한번 나왔습니다. 형울 씨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가 봐야 맨날 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어머니는 그거라도 안 듣는 거 보다 낫다고 자꾸 가라하는데. 사실, 어머니랑 형이랑 환우 모임이라고 같이 나가는 거 별로 달갑지 않지요. 내가 클 적부터 아버지 눈 어둡고 형까지 그렇게 되니 어데 나가도 저는 친구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도 따돌림 받아가 안 있습니까. 그 당시는 아버지 눈이 어두워 저기 가면 애들이 뒤따라오면서 돌을 집어던지고, 내 그걸 보고 어딜 가도 항상 그 마음을

갖고 다닙니다. 지금도 길 가다 눈 어두운 사람만 보면…….

환우로서 한국 정부에 바라는 거, 제가 바라는 건 없어요. 여태까지도 그냥 살았는데 뭐.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면 모르지만 바라진 않습니다.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보상을 받고 싶으니 내나라 하는 거는……. 참, 내 어머니보고 막말합니다. 한번씩 성이 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당시에 아버지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버리지. 지금은 그보다 더 죽고 못 사는 사람들도 헤어지는데 왜 그러고 살았냐고요. 우리한테 뭘 물려줄라고.

만일에 정부에서 특별법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면 아픈 사람들 원폭 2세들도 치료 정도는 좀 무료로 해줬으면 하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는 왜 이리 아픈지, 진짜 원폭 때문인지 한번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뉴스 내가 들은 것도 있고요.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돈을 받아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 뚫고 포항제철 지었다 하는, 그래놓고 감쪽같이 감췄다하는 거를…….

일본에다가는 할 수 있다면 한 소리 하고 싶네요. 아버지 당시에 자기 자발로 간 것도 아니고 붙잡혀 간 건데 몸이라도 건강하게 왔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리 됐으니, 일본정부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싶어요. 말한다고 해서 일본사람들이 해줄 사람들은 아니지만, 만일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내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지, 아버님 때문에 온 식구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설문이 진행되는 내내 택주 씨 가족들은 모두 화가 난 사람들 같았다. 단 한번, 택주 씨 모자 간 대화에서 웃음이 있었다. 몸만 늙어가는 아들의 어리광에, 그 아들을 '등신'이라던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다.



우리 딸이 더 클 때까지 지금 이대로라도 살고 싶어요.

백 효 순

6월 27일, 서울로 가는 KTX기차에 몸을 실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원폭2세 환우 백효순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부친(백일기, 1965년 작고)이 원폭피해자인 그녀는 1963년생으로 7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의 병명은 근이양증이며, 현재 병세가 악화되어 혼자 힘으로 거동하지도 못하고 겨우 상체만 움직일 수 있다.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던 그녀의 아버지와 큰언니, 오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오빠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한다. 그녀를 24시간 돌보는 이는 그녀의 늙은 어머니였다. 결혼을 하여 딸 하나를 두었으나 현재는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다. 막내오빠가 3년 전 마련한 빌라에 어머니와 두 오빠, 그리고 그녀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마중 나온 그녀의 모친이 집으로 안내하였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백효순씨는 얼핏 보기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으나 앙상하게 마른 두 다리와 여윈 얼굴을 보니 마음이 시려왔다. 그녀는 모친이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를 돌려주고 나서야 겨우 나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강제징용되어 끌려간 아버지

아버지는 나가사키, 나가사키 장계라는 곳에 강제징용되어 거기 탄광에

서 일했다고 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다친 데는 없고 속으로 독기가 들어갔었나 봐요. 나는 아주 어렸으니까 들은 것도 없고, 엄마한테는 무슨 말을 했는가 모르죠.

백효순씨의 어머니* : 남편은 1944년 음력 5월 열이렛날에 일본에 강제징용되어 가서 이듬해 9월 초닷새날에 돌아왔어요. 열아홉에 가서 스물에 돌아왔지. 일본에는 그냥 가라고 해서 강제로 갔지요. 안 가면 식구들 다 가막소(감옥)에 갖다 가둔다는 바람에 그냥 갔지 뭐. 시아버지가 가겠다고 하는 걸 내가 '아버님이 가시면 안됩니다. 여러 식구들 누가 보살피느냐고, 내가 재를 보내세요. 아버님은 가시면 안돼요' 그랬죠. 나도 일본 보낸다고 하는 걸 해방이 돼서 안갔는데.

남편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탄광에서 일하다가 간신히 밖으로 나왔대요. 먼저 나온 사람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온 사람 나중에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바로 강 건너가 떨어졌더라고요. 지금은 한 방만 떨어져도 여기까지 다 죽죠. 근데 그때는 강 건너 한 방 떨어져가 불바다고 그냥 냄새가 확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건너서 떨어졌는데 그 독기만 그냥 들이마셨다고.

원쪽으로 고통받은 우리 가족

아버지는 제가 세 살 때 돌아가셨어요. 일본에서 돌아와서부터 몸이 조금씩 나빠지셨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으신 적도 없어요.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병원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어요. 하긴 그 당시에 시골에서 누가 아프다고 병원 데리고 갔나요?

* 백효순씨 어머니의 증언은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은 아버지 형제 중에 없고 사촌 중에도 없고 외가 쪽으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그 대에서부터 그냥.

아버지는 1965년에 돌아가셨고 엄마가 많이 낳긴 낳으셨는데 남은 사람은 몇 안 되지. 지금은 엄마, 오빠 셋, 나 이렇게 있는데 오빠 한명, 언니 한명 돌아가셨고 내 위로 언니 한 명 있었는데 5살쯤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병원도 못 갔어요. 시골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큰언니가 돌아가신지 6년 정도, 오빠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한 1978년? 둘 다 나처럼 이렇게 안 좋았어요. 같은 증상. 언니와 오빠는 병원 진단 한 번 못 받아봤어요. 오빠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 몸 그렇게 되고 하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몸은 그렇게 되고 약을 먹고 세상을 버렸어요.

언니는 있다가 어쩌다 갑자기 병원에 가셨는데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며칠을 깨어나지 못했었어요. 깨어났는데 숨을 못 쉬니까 목을 뚫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한 두달 있었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나도 어느 날 숨을 못쉬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 들죠. 살았을 때도 가정형편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죠.

돌아가신 언니 딸도 그렇거든요. 나랑 똑같은 증세예요. 나이가 지금 서른 여덟인가? 부천에 살아요. 그래도 예전엔 계단은 올라오곤 하더니 외할머니 생신이라고 왔는데 업혀서 올라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카 아들이 지금 그 근육병인 거 같아요. 약간 그냥 그런 게 보이는 거 같아, 행동하는 게 약간. 그런데 제 조카도 아직 병원 못가고 있는데 뭐. 그냥 안간대요. 내가 아는 병원 있다고 조카한테 건강진단도 받아보고 장애등급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특별한 장애등급도 안 딸라고 그래. 개 남편이, 우리 조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다른 오빠들은 건강해요. 막내오빠가 지금 우리집에 실질적인 가장인데 미장일 하고 있어요. 같이 사는 둘째 오빠는 마땅히 하는 일이 없어서 한 번씩 나한테서 용돈 타 가기도 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나 마흔 하나에 혼자 됐는데 고생한 건 말로 못해요. 내가 그때 집에 일하고 전부 다했죠. 남부끄러운 소리지만 그저 떡 장사도 하고 참외장사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고 밥도 많이 굶었지.

남편도 애랑 똑같았어요, 증상이. 영감 돌아가실 때 내가 오줌 똥 다 받아내고 그랬어요. 일본 가기 전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어휴 말도 마. 어떻게나 말랐는지 이 손목을 만지니까 내 손안에 다 들어왔어요. 다리를 잘 못 걸었어요.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인제 청량리에 미군병원이 있었어요, 미군들 가는 병원. 거기 갔는데 받아주지를 않고 돈이 없어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냥 강제로 기차에 업고 갔어요. 업고 가서 정류장에 가서 업고 가서 내려가지고 또 청량리 정거장에서 또 업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강제로 몰래 놓고 왔어. 근데 병원에서 본 체도 안하더라. 그래서 그냥 죽겠으니까 그냥 보내달라고 해서 왔죠. 뭐. 보이주지 않으니까. 병원에 데려가도 뭐 병원에서 봐줘요? 돈 없다고. 지금은 보건증이 있으니까 봐주지, 그때는 안 봐주지.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나는 원자병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나는 원자병이다, 원자병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그렇게, 누가 "너 왜 이렇게 다리 아프니?" "몸이 왜 그렇게 불편하지?" 그러면 "원자병이에요, 원자병이에요." 그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어린 나이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땐 일반생활할 땐 별로 불편함을 몰라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거나 약간 급하게 움직이거나 할 땐 계단 같은 델 올라다닐 때 그럴 때 힘들더라구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서서히 안 좋아지더라구요. 그러다가 인제 대중교통 버스나 그런 거 탈 때 힘들고, 안 다니게 되고. 그러다 았았다 일어날 때 힘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일은 못하고 그냥 잘 아는 집에서 집 봐주면서 집안 살림 해주면서 한 10년 넘게 있었어요, 가족처럼. 배운 것도 없고 몸도 그러니까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일단 안 따라주니까.

막내오빠 집에서 나랑 내 딸, 엄마, 오빠 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1991년에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이랑은 떨어져서 막내오빠 집에서 나랑 내 딸, 엄마, 오빠 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성남에서 살고 있죠. 이혼한 건 아니고 남편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으면 집이 막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행패부리고 그러는 건 없는데 술먹고 오면 내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기운은 없는데 그냥.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일이 없어요.

또 몸도 안 좋고 내가 거동을 혼자 못하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에 안 왔지. 그리고 여기엔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엄마랑은 가끔 싸우기도 하고.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도 몸이 좋으나 안 좋으나 딸이니까. 짜증내면 더 짜증나. 보통때는 우리 엄마하고 딸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애기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하고, 팔레미니까 뭐 힘들고 그래도 해주실 수 있을 때까지 해주셔야지.

나만 병원에서 검진 받아봤지.

옛날 제가 구월동에 살았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여성연합회 총무님하고 아시는 분이 계셨고 제가 원폭피해자 2세라고 했더니 말씀을 듣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총무님 만나 뵙고 교회여성연합회 주선으로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검사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나만 세브란스에서 검진 받았는데 근이양증이라요.

87년인가 88년도에 검사받고 중간에 결혼하고 나서 95년도에 또 검진 다시 받았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요. 그때 검진받을 때 한달간 입원해가지고. 조직검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88년인가 그때도 그랬고, 1995년인가 96년도에 그랬고. 주로 피부쪽 검사 하더라고요. 80년대에는 다리 조직검사하고 90년대에는 팔 쪽 검사하고. 근육이 없으니까 때낼 데가 없으니까. 건강검진을 위한 입원이니까 입원후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건 없죠. 검사만 그냥. 그때는 다 교회여성연합회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16년 전에 제 얘기가 KBS 추적 60분에도 나왔고, MBC, SBS에 다 나왔고. 그때 그래서 뭔가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연세대에서 공부하던 일본인이 나 일본에 데리고 갈 거라고 했는데 그때 손 사진 찍고 몸 사진 찍고 다 그랬는데 안되는걸 뭐. 사진 일본에 갖고 갔는데 거기 의사가 그랬대. 사진보고는 원폭 때문이 아니라고 했대요. 방송에 나오는 거 다른 가족들도 숨기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감추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근이양증은 아무런 치료방법도 없고 약도 없대요.

내가 지금 지체장애 1급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죠. 장애수당까지 해서 한달에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딸 가르치고 병원다니고 하죠. 그냥 저우 그거 나오는 거 뭐. 내가 아껴쓰니까 살지. 병원 한번만 가면 병원비가 휴……. 병원가기가 힘들어요. 병원 한 번 가고 싶어도 돈 들어가니까 안 가게 되지. 근이양증은 아무런 치료방법도 없고 약도 없대요. 치료방법이 없으니까 더 심해지지만 하죠.

가끔 감기 걸리면 숨을 잘 못 쉬니까.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가래가 내 힘으로 뺄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하기도 힘들고. 그때는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도 응급실에 있으면 병원비가 안 들어가는데 입원실에 올라가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치료만 하고 나오는 거죠. 혈액주사 맞고, 영양주사 맞고 그냥 그러고 나오는 거죠. 부담이 되니까 위급할 때만 잠깐잠깐 응급실 있다 오는데 보통때는 그냥 병원에 누워있으면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냥 퇴원하고…….

80년대에는 나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걸어 들어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혼자 못 다녔지. 지금도 내가 병원에 갈려고 하면 온 식구가 대동을 하고 119 불러서 가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 출입을 못해요.

가족들이 있어도 다들 사는 게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죠. 내가 아프면 우리 어머니가 나 입원한 병원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차비를 줘야지, 밥값 내가 줘야지, 병원비 내가 내야지. 병원도 좀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지. 엄마도 생활이 안되니까. 오빠집에서 여유가 있으면 뭐 해주겠지만 사는 게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막내 오빠가 결혼을 못했거든요. 내가 여기 와서 지내니까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냥 이렇게 쉬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내 몸이 너무 힘들니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쉬다가 편안

하게 죽었으면…… 그게 내 소원이예요. 숨 막히고 답답해가지고 죽겠더라구요. 몸이 안 좋아지면 가끔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요. 숨이나 편안히 쉬다가 가야지.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힘들 때 병원 가고 싶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은.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한국정부는 우리 원폭 2, 3세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사도 좀 하고 생활비도 좀 지원해 주고, 치료해 주면 좋겠네. 정부에서 피해보상도 좀 해 주면 좋죠.

일본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서 그렇게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피해보상도 해 주고 그러면서 뭐 다 끝났다고 나 몰라라고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2,3세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3세 4세대 많을 거 아니예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도 보장해줄 건 보장해줘야죠.

살다가 고생을 얼마나 했게, 내가 그 때문에. 시상을 버릴 때 보상이라도 좀 받았다가 한달이라도 받다가 하루라도 받다가 내가 죽었으면 원이 없지. 고생은 그 사람, 나도 영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서 굶으면서 살았는 거 다 알고.

나 같은 사람은 좀 지원해 줘야 해. 아들 딸 그렇고 영감 그래서 죽고. 지금껏 애 때문에 고생하는 나같은 사람을 저거가 보상을 해 줘야 해.



백효순씨는 2005년 7월7일 갑작스러운 폐렴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8월24일에야 겨우 퇴원할 수 있었다.

■ 백효순님이 한국원폭2세환우회 게시판에 남긴 글

안녕하세요.

저는 원폭피해2세입니다.

아버지께서 강제징용을 가셨다가 원폭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께서서는 원폭피해자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접수를 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 아버님이 돌아오셨는데 오실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점점 거동을 못하시게 되어 저희 어머니께서 수발을 다 해드렸다고 합니다.

문밖출입도 못하시고 사시다 40세 때 돌아가셨답니다.

저희가 형제가 6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4형제만 남았습니다

85~6년 도쯤에 원폭피해자협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신 oo 협회회장님이 계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협회에 등록도 안되어 있어 병원에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었는데 무슨 보상이나 받으려 온 사람 취급이나 하고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냐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않고 한시간 정도 흘렸을까 서류를 주면서 작성을 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운동 한문으로 된 것이었는데 읽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본인에 관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해서 작성을 해갔는데 어떻게 하다 흐지부지되어버려 등록을 못하고 지내오다 이번에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저를 알게 되어 협회에서 신촌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게 해주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근

육병이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저 혼자라도 택시를 타고 병원을 다녔는데 지금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 데려다주면 컴퓨터하다 TV보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이야기 하는 것이 저의 일상생활입니다.

저희는 6남매가 있었는데 그중 제가 막내입니다.

첫째 언니 피해자

둘째 오빠 피해자

셋째 오빠

넷째 오빠

다섯째 오빠

막내가 접니다 피해자

첫째언니 둘째오빠 막내 저 이렇게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증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언니는 이렇게 살다 한5~6전에 하늘나라에 가셨고, 언니가 낳은 딸 첫째가(38살)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고 둘째오빠는 같은 증상으로 30년 전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살다 가겠지요. 저한테는 11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더 클 때까지 지금 이대로라도 살고 싶어요.



내 아픈 거는 괜찮은데 아들이 또 아프니까

서정희*

2005년 6월 28일 울산 자택에서 서정희 씨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서정희 씨는 올해 46세로 피폭자는 모친(정호입)이며 2남 1녀중 장녀이다. 형제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본인은 2003년 자궁암으로 적출 수술을 받았으며 빈혈도 심한 상태이다. 현재 기혼으로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의 피부병과 빈혈이 본인에게서 유전되었다고 믿고 있다.

내 학력은 초등학교까지예요

어렸을 때 학교보다는 집안일을 돕는 게 더 중요했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항상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내 태어나기 전부터 눈이 나빴어요. 양쪽 눈이 다 하얀 백내장으로. 걸으러 보기에 완전 흰둥자가, 우리는 이렇게 각막이 다 보이는데 엄마는 이게 없어요. 자랄 때 엄마 외모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동생들도 그렇고, 친구들이 놀리니까 어린 마음에 많이……. 항상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내내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엄마가 환병이랄까,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화가 치미는지 가만 있다가도 막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날

*서정희씨는 자녀들 때문에 본명이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씨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천둥 치잖아요, 그 때는 찾아도 사람이 없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사람이 혼자서 못 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누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낫는데 혼자 있을 때는 밤이라도 사람 있는 데 쫓아가요, 불안해서.

그러니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엄마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살림을 많이 하기는 하셨지마는 아버지도 많이 하셨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한다고 했는데 사는 게 말이 아니었지. 결국 제가 만이니까 저도 시집가기 전까지 살림을 많이 해야 했죠.

저는 어려서부터 코피 많이 흘리고 빈혈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앓았다가 일어나며는 뭔가 싹 내려가는 느낌을 내가 알아요. 그래 다른 애들은 금방 뛰어가는데 나는 못 뛰어가요. 서가지고 조금 있어야 겨우 갈 수 있고 이랬지.

엄마가 피폭 당시에 열 두 살인가 열 세 살인가?

피폭 당하고 일본 거기서 외가 식구들이 모두 있다 나왔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작은 외할아버지, 외삼촌 두 분. 작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동생 분은 거기서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내 어렸을 때 발가락 잘려서 계시던 기억이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 내내 지팡이 짚고 다니신 기억을 하거든요. 외할아버지는 다른 데도 많이 편찮으셨는데 어렸을 때라 잘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부터 외삼촌들도 다들 건강이 안 좋았어요.

엄마도 젊어서부터 건강이 안 좋았는데 우선 눈이 그랬고, 지금은 허리가 안 좋아서 다섯 발자국도 못가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엉치 뼈가 내려가지고, 이게 살을 딱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발자국을 못 가고 쉬었다 가고 이러거든요. 오십 안 되서부터 걸음을 몇 발짝 못

가고 우리랑 이렇게 가면 우리 저만치 서서 있고 엄마는 한참 앓았다가 오고 이랬거든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무릎 관절도 안 좋고.

수술을 4년 전에 눈 수술 했고 갑상선도 안 좋아서 7년 전에 수술했어요. 눈은 지금 한쪽은 완전히 실명 했고, 그래 한쪽이 안 보이니까 눈꺼풀이 내려가잖아요, 다른 쪽을 그래서 쌍꺼풀을 했어요. 다른 쪽은 약간 보여요.

수술을 진작에 하고 싶었어도 당시는 형편상 그것도 안 됐고. 건강수첩이라는 걸 몇 달 전에 받았으니까 그 전에는 수술비 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 냈어요. 요새는 복지회관 거기서 병원도 많이 가고, 약을 항상 한달 치 가져와가지고 먹고 파스 같은 거 내내 바르고 이럽니다. 허리 물리치료도 한번씩 하고요.

엄마랑 저랑 사이는 뭐 자상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말도 서로 많이 안 하고요. 엄마 욕하는 핏병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도 아프다는 말은 엄마한테 별로 안했죠. 못했어요. 코피 흘린다는 말은 좀 했고 그런데 촌에 할머니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등한시했지.

그래도 마음속으로야 자식인데 엄마도 마음 아프게 생각 안 하겠어요.

형제가 남동생 둘이 있는데 둘 다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폐 쪽으로 좀 안 좋지요. 허리도 안 좋아서 디스크 판정이 났고 막내는 수술하라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술한다하면 회사에서 좀 안 좋아할까봐.

형제들이랑 사이는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 동생도 허리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엄마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뭐 허리가 안 좋다하는, 또 기관지도 모두 안 좋고. 그런 거는 공감할 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는 병원에 좀 자주 가봐라, 얘기 하고, 우리 큰동생 같은 경우에는 목 뒤가 좀 많이 당긴다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자주 해요. 형제들 서로 아픈 얘기

도 하고, 다들 몸이 안 좋으니까.

조카들도 있는데 개들도 지금 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끼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코피 많이 흘리고 빈혈이 심해요

사춘기 전부터 그랬어요. 수술할 때도 내가 빈혈이 심해가지고 피를 엄청 넣었거든요. 수술하는 도중에도 피가 모자라서 넣고 이랬는데 빈혈 이거도 낫지를 안해요.

제작년에는 자궁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서 11월에 수술 받았죠. 암 종류인데 그게 연기암이라고, 시초에 내가 알았죠. 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궁을 들어낸 거예요. 이전에도 생리할 때 많이 안 좋았죠. 항상 냄새가 많이 났고 생리 양이 조금 많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지금도 수술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씩 검사는 하러 가죠.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안 좋아요. 항상 아침에 우리 아저씨가 상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요. 전혀 뭘 들지를 못해요.

물리치료를 받으라 하는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지금 형편상 할 수가 없죠.

빈혈도 어려서부터 있어서 예사로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 심각하고. 그래 수술 들어간 날 저녁에 계속 피 주사를 맞았거든요. 수술하고 나와서도 고생을 좀 많이 했고. 병원서 꾸준히 약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빈혈이 심하니까 아줌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약을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싸요. 좋은 거는 대개 비싸대요. 수술하고 나와서는 3개월 정도 먹었는데 그 뒤로는 안 먹었어요. 수술 후에 빈혈이 더 심해졌죠. 약을 꾸준히 안 먹으니까. 내 피부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노래요. 핏기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수술하고 나서 암은 도려냈을지 몰라도 허리가 아프니까 더 안 좋아진 셈이에요.

이게 엄마 영향인가 싶어요

내가 왜 이래 아픈가…… 아무래도 엄마가 우리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안 좋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니겠나.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허리 아프단 소리는 안 했거든요. 친정엄마는 항상 이렇게 보면 꼬부랑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게 엄마 영향인가 싶어요. 지금 우리 동생도 허리가 안 좋잖아요. 영향이 아무래도 있죠. 피폭이 안 있겠어요?

집에 빛도 많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업 가지게 돼 있질 않으니까. 허리가 우선 안 좋으니까 다른 거는 이야기도 못하고. 이전에도 다른 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노동 이런 거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좀 가보고 싶지만 동창회다 친구들 모임이다 하는 것도 안 나가요. 형편이 안 되서 첫째 못 나가고, 내가 좀 많이 배운 거 같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으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남편이 중장비 일 해서 먹고 사는데 요즘 일이 없어서 노는 편이죠. 한달 평균 수입이 2백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빛이 지금 한 5천 5백 정도 있거든요. 애들도, 아들래미 지금 군에 갔는데 갔다 나오면 복학해야 되고 딸래미는 그나마 형편이 안 돼서 2년제 나와 가지고 지가 돈 벌고 있고.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생활능력이 돼서 돈을 벌러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저씨 혼자 벌어서 이래 먹고

살라하니 좀 힘들죠.

애 아픈 게 원폭 영향인가 싶어도 창피스러워서

우리 아들이 아토피성, 그게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짹 짹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아마 내 탓인가 싶어 걱정을 많이 해요. 마음이 얼마나 안 됐다고요. 내가 아프면 되는데 내 아이까지 저러니까 우리 아저씨한테 말은 못해도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날 닮아서 코피도 많이, 매일 흘리니까. 머슴앤데도 코가 평소에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세수만 하려는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코피 많이 흘렸을 때도 내내 탕약 같은 거 지어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안 낫더라고요. 날 닮아서 남자앤데 빈혈이 그래 심해요.

그러니 아토피도 외가 쪽 유전으로 그러나 싶어. 지금 군에 있는데 군병원에서는 간단한 치료만 해주잖아요. 약 먹고 심하면 또 가고. 군에 갔을 때 최고 걱정을 했어요. 군에 있어도 신청을 해가지고 군병원에 내내 가거든요. 그래 전화하면 '피부 괜찮나, 병원은 갔다 왔나?' 하면, '엄마, 어제 또 갔다 왔어요 괜찮아요' 이러거든요. 그래 병원에서 약도 주고 바르는 거를 주니까 거기서도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아토피는 겨울 내내 병원에 왔다 갔다 해요. 군에 있어도. 집에서는 화장품을 일반화장품 말고 아토피에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안 떨어지고 계속 부쳐줬어요.

군에 가기 전에 아토피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갔는데 안 낫는답니다. 이거는. 다른 애들 아토피는 살이 겹치는 데만 있는데 우리 아들은 완전히 뺨 껍질처럼 짹 갈라지는 거 있죠. 팔하고 다리하고 배하고. 안 낫는 거라 하니 본인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 아저씨는 유전이라 하면서 외가 쪽을 의심하는데 차마 내가 그 말

을 애한테 하지는 못하겠고 평생 골병이에요.

내가 아픈 거는 괜찮은데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애 아픈 거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시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쪽에는 이런 게 없는데 애가 왜 이러냐고 몰아 붙이니까 그런 말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나도 애 아픈 게 원폭 영향인가 싶어도 창피스러워서 의사한테 말도 못했지. 애한테 외가 쪽에 피폭 그런 게 있다 말하면 성격에 안 좋을 까봐 그 말도 애한테 안 하고.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 말을 안 하고 어른 되면 괜찮다고 달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안 낫는다고…….

다행히 애가 성격이 좋아서 아파도 군 생활에 적응은 잘하고 있고, '엄마 괜찮아요' 하면서 항상 엄마 걱정을 먼저 해요.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아저씨가 애 어릴 때 애가 왜 저러냐고, 얼마나 때려가지고 애가 생똥을 싼 적이 있었거든요. 애가 낫지를 않고 자꾸 점점 심해가니까 왜 저러냐면서.

다행히 지가 성격이 소탈해서 그에 대해 공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원폭 피해 2세라서 내가 이랬는갑다, 이래 생각하면 애가 더 충격이 크겠죠. 원폭에 대해서는 몰라도 내가 자기처럼 코피 흘리고 빈혈 있다는 건 아는데, 엄마 유전이다 이런 이야기는, 애가 착해서 드러내 놓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항상 지가 먼저 엄마를 생각을 하고 아파도 말을 잘 안하는 편이거든요. 엄마 생각을 많이 해요.

원폭 환우로 등록하게 된 거는

내가 수술하고 나서 있으니 엄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저게 있는데 연락 오면 이야기 해줘라,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죠.

그 뒤로 모임에 나오라 하는데 내가 못 나갔어요. 전에 합천에서 모임을 했다는데 거기도 못 갔거든요.

애들도 있고 너무 멀어서. 우리 아저씨가 또 그런 문제에 대개 민감하거든요. 내가 원폭 피해자 2세로 아파서 아들이 그렇다 하면……. 그래 드러 내놓고 말을 못해요. 시집에도 그렇고. 그래 안 가거든요. 다른 2세들하고 만난다 해도 나한테 큰 도움은 없을 거 같아요.

정부에서 병원 같은 거, 약 같은 거나 좀 지원해줬으면 싶은데, 사실 바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 정부에서도 1세는 당연하고 2세들한테도 보상이나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 하는데 2세들 보상문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엄마로 인해서 내가 이렇고 또 아들래미까지 피부염증이 있으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좀 그렇죠. 의료지원 같은 거. 나도 경제적인 거는 바랄 것도 없지만 약 같은 거 조금 있었으면 좋겠죠. 물리치료라도 받고 싶고. 빈혈이, 지원을 좀 해주면 약이라도 타먹을 수 있고, 내 바라는 건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내 답아서 아프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파

손 점 도

6월 11일 오후, 진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진주에 사는 원폭2세 환우 손점도씨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손점도씨는 진주터미널 인근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모친(이정애, 70세)이 원폭피해자이며, 2남 2녀중 맏이로 태어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장에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호흡이 곤란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했다. 현재도 알레르기성 비염, 간질환, 당뇨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슬하의 두 자녀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현재 여관을 경영하며 혼자 살고 있다.

우리 엄마는 약 떨어지면 안되제

주로 당뇨약 드시고, 나도 당뇨가 있거든. 당에다가 혈압에다가 뭐 또 저게 위장에다가, 혈압약도 항시 드시고, 뭐 또 이마마 내 뼈가 이 뼈가 아파가 못사는기라. 그래갖고 항시 파스니 진통제를 그래 가하더라꼬. 등이 라든지 마디마디가 그래 아프다 하면서.

엄마는 건강수첩이 있어가고 아플 때마다 일본에 왔다갔다 하셨는데 중

합검진 받다시피 치아도 안 좋고 하니까 치아도 좀 손보고 이래 오시대. 보통 때는 그냥 합천서 보건소로 마 이래가고 되게 심하면 일본 갔다 한번 씩 오시고, 좀 자주 아프다고 마이 그라더라고.

병원에 입원도 하지. 고향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큰 병원으로. 우리는 먼 단위에 엄마가 계신게 그라면 합천 시내에 입원하고 또 안 그라면 거기 좀 그라면 저 대구 가는 쪽에 중간쯤에 큰 데 가서 입원하고. 그래도 병원비 부담은 없어요. 협회에서 다 되는갑던데요? 또 그라고 그 게 또 영세민으로 되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혜택을 보고.

우째 일본가게 됐는가는 몰라

우리 외할아버지 되는 분이 거기서 저게 이리 일본에서 이래 나오셨는 갑던데?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갑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우리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랬지. 우리 아버지쪽에는 괜찮지.

손점도씨의 어머니 : 아버지 혼차서예, 큰집에 계시다가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들이 안 계시고 함께네, 큰어머니 밑에서 있다가 자기 맘에 안 들어서 열 여섯살이라 카던가 열 다섯 살에 일본에 건너 갔다 커는기라예. 그러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한국에서 결혼했다캐예. 결혼해서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캐예.

장애아를 낳은 남동생

우리 형제가 모두 넷인데 우리 남동생은 심장이 안 좋거든. 남동생이 뭐라카꼬? 기형이라고 하나, 그런 애를 낳았는데 그게 우리 또 엄마 피를 통

해서 그래 나왔다 카면서 이라네.

그런 거를 그 병원측에서도 이 유전병인데 인자 뭐 저게 할무이가, 옷대 부모가 그라면 대대로 자식들이 괜히 그런. 엄마가 피해자 아입니까 원폭 피해자. 그거로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 하면서. 합천에 그런 아들이 참 많아예, 합천에. 쯤 저기 그런 아들이. 기능이 영 그한 아들이. 특히 합천에 더 많다카네.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지금 6,7살 기능 밖에 안되고. 우리 남동생하고 계속 둘이서 신랑각시 벌어가지고 그애 학원 인자 말도 할 수 있는 학원 이런데 보내는데 아직까지 말을 제대로 못해. 발음이 안 바르고 그렇더라고.

그냥 애를 이렇게 보면은 이래 뭐라카꼬. 애가 쯤 좀 모지란다카까? 저거 엄마, 우리 동생은 겉으로 보면 똑똑하고 괜찮은데도.

나는 알레르기 비염, 위장, 대장수술, 간질환, 디스크, 류마티스, 골다공증까지 없는 병이 없어

알레르기 비염을 우리 식구들 전부 다 하는 것 같애. 특히 내가 더 심하군. 나는 대구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정해놓고 가는 데 있고. 진주 병원에서 다니다 안되면 대구까지 가예. 내가 다니는 데 가고. 대구 시내 얼추 다 다니다시피 다녔는데 한군데 가니까 좀 나한테 맞더라고. 그래서 거기 계속 다니고 있고.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 심하게 하고, 위장 안 좋고 또 장이 안 좋아가 장수술하고 간 안 좋고 디스크, 류마티스 뭐 뭐 골다공증까지 지금 이래요. 우리 딸래미가 저기 대구 대학병원에 있는데 한 15년 전에 검사했더니 뼈에 영양이 다 닳아버리고 없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일도 촌에서 하다가 내보고 하지 마라고 해서 안하거든. 병원에서 진단내리기를 수술을 해도 인자 그 영향을 못 받고. 이래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붓고 마 관절이 오더라구. 그래서 촌에 하는 일은 고마 그만두고 내가 놀고 있느니 이거(여관)는 인자 사람 데리고 살살 하고 있지.

지금 몸이 여러군데 안좋고 그래서 피로를 빨리 느끼고 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되게 피로하면 피로회복제라든지 이런 거 먹고, 뭐 피부부터 피부 약 이런 거도 자주 내 달고 있고 몸이 막 자주 가렵고 몸이 조금 열만 나면 이래 마 쫄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지금 우선 병원에서 딱 나타나는게 첫째는 간이 안 좋고 위장 안좋고 장이 안 좋아서 수술한지 한 저게 한 3년 되나? 그래가지고 맨날 1년마다 장 검사를 하고 있고, 허리 류마티스예다가 다리 관절예다가 그런거는 병원에 가면 다 있다카지.

장에 흑이 몇 개나 생기가고, 암이 될 수 있는 흑을 네 개나. 흑도 여러 가진데 그거를 서울예다가 전부 검사한 결과 암에 관련이 되는 저게 그거라카면서, 그러니까네 해마다 해마다 검사, 작년에도 또 저게 세 개를 떼다 아입니까, 흑을,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러타카서, 올해도 지금 또 내가 검사를 해야되는데 너무 부담가고 무서워서 하기싫어서 안죽 안 하고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장은 내 생각에 좋아졌는가 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음식이 조금만 그거한 거를 먹으면 바로 또 마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기라. 내가 돼지고기 같은 거, 닭고기, 우유 이런 거를 못 먹어요.

비염 때문에도 비염이 심해가고 호흡이 제대로 안돼가고 그래가 입원 또 한 번 하고, 내가 그거한 거는 오래됐어예. 이 저게 이 뭐라카고, 똑 감기처럼 이런걸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심하게 하는기라 하면 인자 내가 저기 감당못할 정도로 호흡이 안되는기라. 숨이 막힐 것 같애. 그러면 입원하는거지. 입원을 해가지고 있다가 나오고.

계속 지금 간이 안 좋으니까 피로를 느낀다 아입니까, 피로를. 간 검사를 했더니 간이 이래 예를 들어서 이쪽 저쪽 있으면 한군데꺼는 좀 괜찮은

데 한 군데꺼는 마이 저기 그렇다카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는데 우리가 볼 적에도 완전히 한군데는 반쪽은 마이 그거 됐데.

그래서 일도 좀 적게 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생활을 좀 그거하게 하라카는데, 사람이 또 살면 그게 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되제 그러니까 네 항상 피로하고 거기다 당까지 당뇨까지 오나농께네 영 고마 았으면 설 설 가고 그래예.

당 때문에 우유를 먹어야 하는데 또 우유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니까 그것도 못 먹고, 그렇게네 간에 좋아가지고 간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을라카면 당뇨가 안 좋고 당뇨를 그한거를 먹을라 하니까 간에 또 안 좋고 이렇는다기라. 하여튼 내 피로하긴 피로해요. 내혼자 사살 사람 데리나 놓고 혼자서 조금씩 힘든 일도 많이 못하지.

부모가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아픈 거 아닌가?

나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부모가 건강한 피를 줘서 잘가면 다행인데 부모가 안 건강함께네 내가 이렇는다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원망은 안해요. 부모가 어디 자식을 이런 자식을 이래 뭐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내가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50대지만 내가 나이가 한 스물 얼마부터 계속 이래 잔병치레를 했어요. 계속 잔병치레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고 있으께. 그래 요즘은 마 목이 땡기가꼬 또 어디가도 문하게꼬, 한방 저게 한약방 같은데 그런데 가서 물리치료 받고 또 요새는 침도 좀 맞고, 좋은 긴가 안좋은 긴가는 몰라도 나쁜 피가 있다카면 피도 좀 빼고 마 이래 한다 아입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우리 애들은 엄마가 외할머니 때문에 건강이 안좋다 샀고 그래서 외삼촌 애도 그렇다 샀는데, 우리 아들(애들)은 저거 나름대로 배울만치 배워서 그랬는가 저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

그래도 부모 원망은 해 본 적 없어

그래 인자 우리 엄마가 내가 이래 아파사니까 '부모가 되었고 자식을 건 강하게 해 줘야 하는데 내가 이래 해놔놓게네 너저를 좋은 피를 못 물려줘 가 이래 아픈갑다' 엄마가 내한테 죄스럽게 그래 말을 하더라고. 나를 닮 아가고 니가 아프다 이래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할 때 내 아프면 병원에 마이 따라다녔거든. 지금은 내가 내도록 약을 달고 있으니까 좀 인자 병원이 가참고 하니가 쪼끔 좋아진 편이고 이래 그한테.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따라가고 우리 엄마가 또 그하면 나를 또 그거 해주고 그 란데.

나는 부모를 나를 못가르켰다고도 원망을 한번도 안해봤어요. 그거는 다 생활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다 그럴 수 밖에 없었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렇게네 나는 내 못배운 데에 대해서도 부모한테 원망도 안하고, 그 시점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입에 풀칠도 못해서 찢찢 매는데 우리 남동생들은 공부를 좀 배웠지만은 여자들은 울케 공부를 안 시켰거든. 그때는 그럴 수 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원망은 안해. 내가 뭐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도 되면 배우면 되는기고. 나이가 그 없으니까. 부모 원망 안하고, 우리 엄마가 항시 하시는 말이 '내가 이래갖고 너 저들로 좋은 피를 못 줘갖고 너저가 천날만날 노다지 살고 그하다', '엄마 고마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하면서 사람이 좋은 부모 좋은 저기 그거 한 데서 태어나면 좋지만은 우리보다 더 못한 데를 또 비교해 보소' 그러면서 그래 얘기를 하지.

나를 더 걱정하는 엄마

나는 아주 엄마를 닮아서 내가 이렇다 이런 소리 절대 안하제, 안하는

데. 우리 엄마가 자기가 본인이 당신 자식이 아프다고 이래사코 인자 자기 손녀도 저런 애가 난 거도 할머니 피를 타고 나서 저런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제…….

하여튼간에 우리 엄마는 나를 더 걱정하는거라. 자꾸 아파삿제 이라니께. 고마 걸으로는 멀겁는데 속이 절판났는가 봐요. 내 병을 달고 있고. 그라고 마 할 수 없어서 내가 마 이 건강에 대해서 보험을 전부 들어놔어. 워낙 아픈 데가 많으니까 내 밑에 자식들한테까지 내가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 아입니까. 그래서 내가 벌어가지고 거의 보험 쪽으로 이래 마 그래가지고 내가 병들고 자꾸 병원에 가려고 하니가 내가 마 쪼끔 더 내 밑에 자식들은 내가 좋은 피는 못 물려줘도 내 건강이 안 좋아가고 애들한테 정신적 이라든지 뭐 물질적인 뭐 이런 피해는 주기 싫어서 고마 내가 요즘은 벌어가지고 무조건하고 막 보험을 이 보험 저 보험 그래 넣고 그래 내가 산다 간께.

또 우리 애들이 착해, 내 동생들이. 부산에 동생도 '누님요, 우리사 이래 그한 것도 손이 뒤틀리고 막 이상한 아들도 있는데 그런 데 치면 우리가 안 괜찮소', 이래 하거든. 그러면 '괜찮지 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부모 원망해보면 뭐하노' 하면서 그래그래 사는 기지.

우리 딸은 엄마 닮아서 문제 생길까봐 임신도 안할려고 했어.

우리는 남매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다 결혼하고 살지.

아들도 똑 내맨치로 비염을 잘 해. 감기를. 알레르기 비염이 똑 감기처럼 그래 하거든에. 우리 딸도 그렇고 딸도 똑 내맨치로 마. 뭐라카고. 치아 조차도 아들이 일찍 망가지고 그렇대. 우리 딸래미도 스물 몇 살 때부터 어금니 다 갈아뺐는데. 그거도 인자 부모피를 잘 그거하면 그거한테 유전 이라면서 그캐삿대요.

우리 딸래미도 딱 내같이 병을 똑같이 하거든. 내 저기 병 앓고 마 이라니까 우리 딸이 엄마피를 닮아가고 내가 똑같이 닮았다카면서 임신은 안 할려고 하더라고. 우리 딸이 외할머니가 그렇고 여자는 100프로 엄마피를 닮는다면서 지 애도 낳으면 외삼촌 애처럼 그렇게 된다카면서 안 가질라 하더라고. 근데 시댁에서 거는 또 외동아들이니까 계속 권해가고 이번에는 인제 애를 하나 가지기는 가졌어요.

지가 외할머니가 그렇께네 지 애도 낳으면 그런 애가 나올 수 있다 그래가 처음에 검사를 하니까 우리 남동생 애만치로 그렇다고 하는기라. 그래가지고 지가 아를 안 가질라 했거든. 그래 검사를 마 여러 가지 지가 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늦게 우리 딸래미가 지금 서른 둘인가? 서른 둘인데 인제 아를 하나 가졌는데 유산을 몇 번 시켰어요. 저거 외삼촌 애 맨치로 그런 애가 될 수 있다면서 그래가지고 안 낳는다고 하더만.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해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다 안 그렇다 병원에서 그래 했는데 거의 어찌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임신은 하고 있어요.

딸이 나를 닮아서 아프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자꾸 잔병이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내가 저게 나중에 그하면 괜히 자식들 부담주까봐 내가 내 혼자 스스로 그한다고 보험을 좀 이것저것 열어봐 놓고 그래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제.

나는 우리 엄마한테 안직까지 엄마피를 닮아가지고 이래 아프다 이런 소리를 아직 이만치도 안해봤거든. 우리 딸은 내한테 엄마를 닮아가고 엄마피를 닮아가고, 내가 딱 엄마가치 병을 앓는다면서…… 이래 내한테 던지거든. 그러면 내 양심에 찌리찌리 할 때가 있더라고, 가슴에. 딸도 내한테 잘해. 잘하면서도 지가 그하고 하면. 심지어는 생리하는 거까지 내가

되게 못 견디게 아프거든. 진통제를 맨날 먹거든. 그렇께네 우리 딸도 그러거든. 우리 딸도 생리를 입원까지 한다니까, 심해가고. 그래가 이런 거까지도 엄마닮고. 근데 딸은 내한테 파르박대고 아이고 마 이가집에 뭐 피도 마 더러븐 피를 물리받아가고 나도 더러븐 피를 받았다 싸면서 웃으면 시로 그래 한다 강께네. 그런데도 나는 가슴이 찡찡 할 때가 있어. 나는 안 죽까지 우리 엄마한테 아직 그런 소리 조금도 안해봤거든.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왜 나를 못 가르켰을까, 왜 나를 갖다가 이래 다 건강이 안 좋게끔 이래 만들었을까 이런 소리 아직 한 번도 안했어. 나는 부모 원망을 안해 봤다고. 그런데 요즘 아들 틀리던데요? 뭐 조금만 삐뚤하면 아이 이 이가집도 희한한 이가집을 만나가지고 피를 저기……. 우리 딸은 여자는 100프로 엄마를 닮아서 나온다네예, 지가. 그러면서 엄마가 외할매 닮아 그렇고 내가 엄마 닮아 그렇고 내 우리 딸 낳을까 싶어 겁이나 무서버 죽겠다 그런 말을 한다강께. 딸은 엄마 유전병이라고. 그래 내가 어떤 때는 이래 지금은 웃지만은 한번씩 우리 딸이 던지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들으면 내가 소름이 지칠 때가 있다강께.

내 혼자 사는 거는 그럭저럭 살지

애들이 다 결혼해서 사니까 내 혼자는 사는 거는 그럭저럭 살지. 하긴 뭐 병원에 가서 약 사먹고 뭐 또 자잔하게 수술한다 큰 그거는 애들이 책 임지고 다 해주고. 딸이 지가 카드를 긁어서라도 저거 엄마니까 지가 다 처리해주고. 자잘구레한 거는 내가 하고 그러지. 그냥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보험 자 이것저것 들고.

여관 운영한 지는 인제 한 5,6년 되네요. 그전에는 촌에서 그냥 뭐 농사일 조금씩 했고.

내가 인자 시골에 있던 거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집 사 갖고 이래 있

으면서 좀 빛을 지고 샀으니까 빛도 좀 갠고 이자도 갠고 내 인자 생활하고, 뭐 수입이 얼마라 하기에는 좀 그거하고 수입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인자 애들도 다 출가하고 했으니까 보험같은 기라도 들어놓고 하지.

검정고시까지도 할라고 꿈을 내가 꿴는데

저는 초등학교밖에…… 초등학교 겨우 나왔지. 옛날에는 생활도 곤란하고 그래가지고.

여서는 마 인자 취미활동 내가 여 진주 내려와가 계속 지식을 너무 못 쌓아놔노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몇 년 학원도 다니고 했어. 요즘은 몸이 너무너무 안 따라주는기라. 너무 피곤해가 학원 가놔노면 계속 앉아서 자불다가 오니까. 간 안 좋제, 당뇨 저게 오니까 더 피곤항가? 더 피곤해가고 샘 말로 못 듣겠는기라, 귀에 들어오지를 앓아가. 한번씩 이 일 자체가 저녁에 잠 못 자제. 그래가 가놔노면 자불다가 오는 기 태반이고 이래서 한 안 간지 몇 달 되네. 한 5,6년 땡기는데 꾸준히 땡기는데 수학공부, 국어공부 이런 것도 공부하고.

검정고시나 그런 거 까지도 할라고 꿈을 내가 꿴데. 이 일 자체도 그렇게 건강이 안 따라주는기라, 고마. 온 만신이 아프고. 요즘은 거기 가는 시간에 좀 자지 싶고. 다니던 교회도 그만 뒹고. 내가 마 도저히 내가 그런 거 다니는 시간에 좀 누버야겠다 싶어서.

운치있게 전통찻집 같은 거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기는, 저기 옛날 전통 찻집 같은거 그런 기 하고 싶어. 그런 거는 별로 힘 안들고 시간도 잘 가고 좀 이래 운치있게 좀 분위기도 좀 하면서 그런 거는 좀 하고 싶제. 그런 건 자식들도 안 말릴 거 가고, 자식들 얼굴도 안 꺾일 거 같고, 부모들 형제들한테. 그래 하고 싶긴 하지만은 안 되면 도로 빛지면 우짜겠노 하는 부담감 때문에 못하제. 그런데 인자 앞으로 내가 나이가 좀 들어도 앞으로 한 5,6년이 가도 함 하고 싶기는 하고 싶어, 그런 거는.

이 여관 하는 것도 일반사람은 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아입니까.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이래 뭐 옛날에 뭐 여관 하면 그래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로 몸만 건강만 하면 이것도 괜찮겠더라고, 이 직업도.

TV를 보면서 원뿔이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원뿔2세환우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서로 왕래하는 거, 그런 것도 합천 천기 있을 적에는 저기 그 뭐 교육, 교육이 아니고 모임이 자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는 거 내 주위에 우리 엄마처럼 같은 분들이 가고 오고 우리 엄마도 가고 오고 그라니까 그런 거 대화는 해도 내가 친하게 거기 참석해보고 그래보지는 않았어요.

참석해 보고 그래보지 못한 이유는 뭐 나도 인자 뭐라카고, 바쁘기도 바쁜 그런 것도 있고, 또 상대에서 나를 이래 문의를 하던지 하면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서로 알 수도 없고 그런 거로 그렇고. 근데 TV를 한번씩 보면 이에 대한 게 한번씩 나오더라고. 그러면 진짜 이게 무서운 기구나 싶기도 하고, 이래노니까 우리 아들(애들)이 유전병이다 뭐다 이래

하는갑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게 진짜 무서운 기구나. 전에는 그냥 우리 엄마가 일본 거기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래 해당이 된다, 단 순하게만 생각하고 내 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래 생각했는데.

환우들하고 교류하는 거는 필요하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카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제

필요한 거는 뭐 저기 내가 사는 건 그래 어려운 게 없는데 첫째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만 하면 그하제. 그 말고는 더 그한게 있겠나요? 지금 그한 거는 애들도 다 커가지고 살고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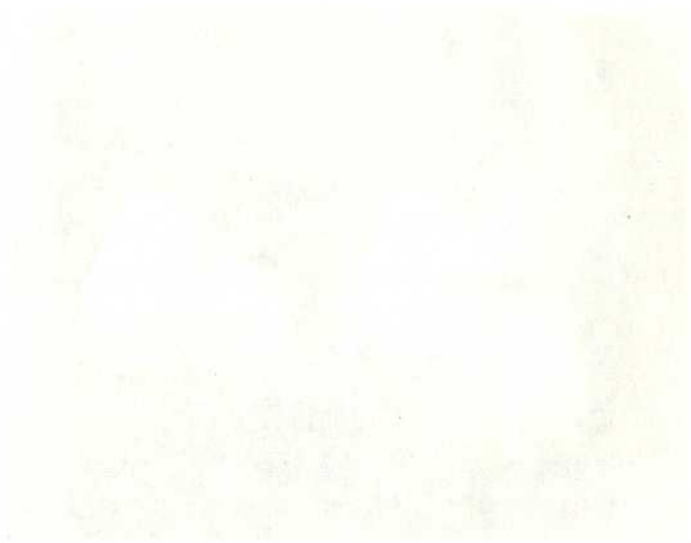
첫째는 우리 부모들도 건강하셔가고 좀 오래까정 사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병원생활하고……. 우리 가족들이 내부터 시작해서 동생들도 그렇고 병원생활 마이 자주하다 보니까 그렇고, 건강한 게 제일 좋지에. 건강하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의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인자 우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밑에 2세대, 내부터 내 밑에까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게 좋게끔 낫게끔 이래 좀 그런 거 바라지. 우리 애들도 저저가 내보다는 지식도 높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외갓집에 그래가지고 외할머니 그래니까 엄마 그렇고,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우리 아도 그럴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래 앓고 있는 병 이거 전부 낫게 해서 더 밑에 2세대한테는 안 번지게끔…… 더 바랄 게 없지에,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예.

나보다 더 아픈 환우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 엄마가 안 그랬으면 더욱 더 좋겠지 만 어차피 우리도 거기 해당이 되는 가족 아입니까, 가족이니까. 좀 우리 처럼이라도 좀 이래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면 되는데,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가고 완전 장애자처럼 그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신경쓰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의학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발로 걸어서 병원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걸어서 못가고 누워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갈 때 까지 그래도 좀 왔다갔다라도 하면서 보살펴주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가 지금은 자기가 그래 그하지만 나중에 연 세 잡쉬가고 전부 각자 자식들은 객지로 나와가고 벌어먹고 산다고 그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이래 집에 와서 치료라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뭐 그런 건강에서 좀 도움받고,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인 도움도 진짜 줘야되겠다 싶은데는 좀 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도 살 수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좀 할라 그래도 나가서 마음은 편하지 벌어먹고 살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주면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좀 연세가 들었다든지 수족을 못쓴다든지 그런분들한테는 물질적인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고 그렇네예. 첫째로 건강이 안 좋으면 그하니까 어디 병원이라도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 도움, 어느 누구 도움 없이 내 자청해서 하지만은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인자 뭐 병원에 가면 바로바로 마 좀 도움을 병원이나 어데나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음 좋겠고 그렇네예.

특별법은 필요하지예. 첫째는 우리가 이래 병으로 해서 못 먹고 살고 어
려우니까 몸이 건강이 안 따라줘서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못한다 아입니까. 그럼께네 그런 인자 도움도 좀 주고
나 그래 바라고 싶어요. 나는 뭐 그거 해가지고 바라지는 않고 다른 분들
로 생각해서라도 인제 좀 뭔가 저기 쯤금 우리 여기서 한국으로 칠 거 같
으면 영세민을 위해서 단계단계로 좀 더 못사는 사람은 1급을 주고, 거기
서 좀 나은 사람은 2급을 주듯이 좀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고 심한 분
들은 좀 알아서 좀 그거하고 그렇게 단계단계로 해서 바라고 싶고, 안 그
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벌어먹지도 못하고 그하니
까…….





요즘 와서는 혹시 원폭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수 자

2005년 6월 14일 부산 자택 근처 커피숍에서 이수자씨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수자씨는 54세로 피폭자는 부친(이석규)이며 4남3녀중 셋째이다. 1남1녀를 둔 어머니이고 같은 원폭2세환우를 남편으로 둔 아내이다. 요즘 아들의 피부병이 피폭 영향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아졌다. 남편도 마찬가지로인데, 그래서 남편은 환우 모임에 나가는 걸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싫어해서 인터뷰를 몰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해야 했다. 위암, 자궁암, 혈관종양 수술을 받았고 관절 질환과 두통도 심한 편이다.

오빠 이종기씨는 60세로 형제 중 장남이며 현재 부친과 함께 살고 있다.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가서 히로시마로 탈출했다 피폭을 당한 부친이 중인 서술 사람이 없어 건강수첩을 발급받지 못하자 백방으로 이를 위해 노력중이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부친의 피폭에 대한 부분은 이수자씨가 스스로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폭2세환우인 이종기씨의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아버지는 안 아프신 데가 없어요.

옛날부터 머리도 아프시고 안 아프신 데가 없어. 연세도 있으시겠지만 삼십대부터 아버지는 일은 못 하셨어요. 시골에 계셔도 일은 안 하셨어요. 엄마가 우리 칠남매를 다 키운 택이지.

옛날에 수술은 삼십대, 서른두 살인가 이래 수술을 하셨다는데, 내과 쪽으로. 그때 맹장수술도 받으셨고 아마 내과 쪽으로 여러 군데 수술을 하셨나봐요. 처음에는 맹장이 터져가지고 합천에 가셨는데 그때 시골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밤에 수술을 못 받으셔서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악화 돼가지고 평생을 일을 못하시고 저래 계시고 지금도…….

화상을 옛날에 많이 입으셨대요, 원폭피해로. 그래 피부도 안 좋으시고, 머리가 그렇게 내내 아프다고 평생을 저래 약을 잡수시고.

병원에 가면 병명은 여러가지가 봐요. 뭐 시력도 안 좋고 머리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안 아프신 데가 없어. 병원을 한번 들어가시면 보통 한 두 달씩 세 달씩 이렇게. 부산 여기 보훈병원에도 많이 계셨고 마산 고려병원인가 저기도 오래 계셨고 합천병원에도 고려병원에 거기도 몇 번. 입원 한번 하면 어떤 때는 네 달씩 이렇게도 계시니까. 지금도 항시 약을, 부산 보훈병원에서 약을 항상, 1년 365일 약 없이는 못 사시니까. 병원은 자주 가지는 안해요. 검진해 놓은 게 있고 거기 또 아는 간호사가, 올케 동생이 보훈병원에 있어가지고 요즘은 두 달에 한 번씩, 한달에 한 번씩 가고. 약은 처방전이 항상 거기 있으니까 약만 우리 동생이 갖다가, 연세가 있으니까 병원에도 모시고 가기도 힘들고 이래서 동생이 약을 타가지고 와요.

어쨌든 이래저래 치료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만은 오빠가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딸이라서 얼마가 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치료비는 거기서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는가 봐요. 안 되는 것은 우리 오빠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또 합천에서 그 영수증을 보내면 진

료비도 나오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대로 치료를 못 받으시죠. 다 모두 사는 게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못 가시고 그렇죠. 지금도 눈이 많이 안 좋아 자꾸 보훈병원에서도 수술을 하라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연세도 있고 하니까 사실 모두 공부시킬라 하니까 올케도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 공부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연세에 수술을 하실라 하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싶어 해도 못하시고.

7남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형제는 7남매죠. 남자 네 명, 여자 세 명. 큰오빠는 몸이 많이, 다리가 많이 안 좋아가 군대도 못 갔거든요. 군대 갈 나이 되가지고 아파서. 그때만 해도, 오빠 나이 올해 육십이신데, 시골에 있다보니까 형제는 여럿이지, 시골 농사 질 사람도 없고 하니까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군대 앞두고, 군대 영장 받아 놓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한쪽 다리가 영 굵고. 그때는 누워서 밥을 먹었어. 그래 엄마가 한 7,8년을 진짜 좋다는 데는 다 다니고 이 불보따리를 아예 싸서……. 다른 형제들도 뭐, 언니도 수술 받았고 동생들도 수술 받아서. 막내 여동생이 지금 원인도 없이 어디가 안 좋은지 몸이 마냥 많이 안좋아요. 사는 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병원도 옮겨 못 가보고 그렇나봐요. 애기 낳고 맹장수술하고 지금은 어디가 어떻게, 계속 애가 마르더라고. 남자형제는 막내가 내과 쪽으로 수술 받았고 다른 사람은 뭐 그러니까 남매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그나마 남동생 둘이 좀 건 강한 편이고 나머지는 다 혈압도 그렇고 모두 머리가 아프고 피부도 안 좋고.

내 몸의 병

나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다리가. 나도 한 일곱 살 땐가 그때부터 누워서 소변하고 그랬다 하거든요. 그걸 낫는데 한 칠년 걸렸나봐.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부모님들은 고생하고. 지금도 이렇게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름에도 짧은 옷을 못 입고 걸음 걸을 때도 계단 같은 데 다녀도 힘들고.

특히 나는 팔도 혈관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27년 전에 했는데 또 이렇게 생겨.

위암도 겪었고, 자궁암도 수술을 했고. 지금도 위는 6개월마다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태고 자궁은 초기에 그래가 레이저로 했기 때문에. 혈관종양이 다시 생겨서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체질이 특이체질이라 항생제가 안 맞는 체질이예요. 그렇다보니까 수술하기도 참 위험하고, 지혈도 안 되고.

수술한 거 외에도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해서 입원을 했죠. 요즘 병원은 그래 자주 가지는 않고 한달에 두세 번 가고 주로 한의원에 가는데 특이체질이라 한의원에 가서 한방 침을 맞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거는 누구나 어렵고하니까 특히 여자들은 자기 몸 아픈 거는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요새 머리가 아파서 아침 일찍 산에를 다니는데 아무래도 그래 할라니까 다리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관절 약을 또 먹으니까 위가 안 좋으니까 위에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 그래서 침을 맞고 그렇게 하죠.

전에는 그냥 살다보니까 아프지, 이래 생각을 했지. 왼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자꾸 언론에서도 그러고 아버지도 저래 아프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이래 영향이 있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지. 지금은 아마 피폭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하게 나는 그에 대한 진단을 못 받아 봤으니까 우리 2세대들이 그 영향을,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내 아들의 피부가

애들은 남매예요. 큰애가 딸이고 작은 아이가 아들.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편인데 작은아이가 지금 스물일곱 살인데 낡아가지고 한 일주일, 그때부터 계속 피부가 병원에 가도 아토피도 아니라 하고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군대는 갔는데 모든 게 애를 쓰고 내내 약을 사서 바르고 집에서 사 보내고. 지금도 올해 대학 졸업반인데 만신에 연고를 바르고.

이때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알고 나서부터 진짜 무척 걱정이 돼요. 피부가 엄청 안 좋거든요. 특히나 팔다리 겹쳐지는 데, 이런 데는 지금도 흉이 시켜명거든요. 그게 또 가라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약이 안 들어, 듣는 약이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아토피도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의학용어는 모르잖아요. 그냥 치료해 봅시다, 이려고. 아토피인가 아닌가 물으니까 아토피는 아니라 그러더라고, 피부염이라 이러면서.

심지어 서울에 가서 전문 피부과에 가서 한 일년 가량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대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전문치료를 받았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또 깨끗하게 나아요. 나았다가 또 그 약 안 쓰고 학교가 여기라서 집에 오면 또 재발하고…….

군에 있을 때, 여기서 의경이었거든요, 내내 피부가 안 좋으니까 군대 약으로 안 되니까 사제 약이 들어가더라고. 훈련소 훈련 중에서도, 약이 계속 여기서 가고, 속옷도 내내 여기서 먼 옷으로 보냈어요. 군대 있을 때는 꼭 경찰병원 안 가려는 보험이 안 되더라고, 집에 들렸을 때도. 그래 내내 여기 나와서 그걸 받고 했어요. 약을 사제 약을 쓰고 보험 혜택도 못 보면서. 군대는 병원을 못 가잖아요. 내내 여기서 약을 타가지고 2주 만에 한번씩 외출을 나오며는 진료 받아가지고 약 타서 가고. 군대생활을 그래

했어요.

증상이 발진하는 것처럼 올라왔다가 가라앉고 이러면 거기 피부가 꺼렇게 이래요. 자꾸 낫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다보니까 퍼렇게 되고. 치료받으면 받을 때 그때는 나아요. 한 한달, 2주일,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그 때는 가라앉아 낫거든요. 낫아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병원을 계속은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러고.

애가 그렇게 아픈 걸 보면 진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자식 일인데.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은 그 하난데 마음이 아프고 특히나 또 저래 자꾸 안 낫다 보니까, 결혼할 나이는 됐고 더 걱정이 되는데…….

요즘 원폭 이걸 알고 나서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혹시나 그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그래도 병원 가서는 물어볼라 해도 그 말이 입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병원에 가서도 거기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록에 남고 그럴까봐.

처음에는 아이들 태열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 알고 진료를 받고, 또 받으면 그때 좀 괜찮으니까 아이들 또 짓무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내내 그러다가 아토피 관련 책도 보고 이러니까 예사 아토피 줄 알고 또 그쪽으로 약을 쓰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낫고 낫았다가 또 올라오고,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지금 나이 스물일곱인데 어릴 때부터 계속 받아도 받을 때는 낫았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모르겠어.

요즘 와서는 혹시 원폭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내가 이걸 김형욱씨 알고 원폭피해 2세대 언론에 하고 이렇다보니까 혹시 그게 아닌가 싶은데, 병원에도 입이 안 떨어지고 아이한테도 혹시 실망할까봐 그 소리가 안 나오고. 요즘 언론에서 뭐 몇 대까지 영향이 있다 이러니까

딸아이한테도 만약에 시집보내가지고 그그 자식이 혹시나 그런 영향이 있다든가 해서 그 부모들이 친정에서 그랬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저씨도 2세지만 이런 조사를 안 받겠다 하고 나를 여기 못 가게 해요.

사는 이야기

우리 남편도 2세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결핵을 많이 앓았고 피부가 많이 안 좋았던가 봐요. 결혼할 때도 막 얼굴이 데인 것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얼룩얼룩하니 그랬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 이십년은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지.

처음에는 개인 자가용 기사하면서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고 그렇게 다녔는데 아무래도 일하는데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치과재료 납품하는 자영업으로 돌려서 지금까지 그러저럭 밥은 먹고 살아요.

나는 남편 하는 일 조금 전화나 받아주지 직업도 없고.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집와서 그냥 전업주부로 살은 그런 케이스지. 남편이 자영업을 하다보니까 일정한 수입은 없고 그냥 그런데 요즘은 더 어려워져서, 빨리 아들이 취직을 해야…… 올해 대학졸업반인데. 내 몸 아프면, 입원이 라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부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많이 부담스럽죠. 뭐 하고 싶은 일을 딱히 생각해보지는 안했는데 첫째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다리부터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하는 상태예요. 서서 하는 일, 이런 걸 걸음 많이 걷고 하는 걸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건강이 따라준다면 다만 조그만 가게라도 해본다든지, 남편이랑 둘이서 장사라도 조그맣게 식당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어도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태고. 나 이도 가고 그렇다 보니까 아들이나 어서 취직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거 밖에는 없죠.

피폭이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도 지식이 없으니까, 시골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조심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이 살았어요. 피폭이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몰랐는데 우리 오빠가 서류를 할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언론에서 요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도 그걸 알지, 전에는 전혀 몰랐죠. 그래 우리 보고 많이 안 낳는 건데, 많이 낳아가지고 고생시킨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형제들 사이는 그냥 좋은 편인데 만나면 서로 우리도 이때까지 몰랐다, 니도 그래 아픈 게 혹시나 그 영향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요즘은 하게 되고.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는 그냥 아프다고 그렇게만 하지, 어떻다 하는 이런 얘기는 못하고요.

원폭 2세 모임이 있다 하는 걸 안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른 2세들도 하고 교류를 하는 건 없어요. 앞으로 모임이 있다든가 그런 데는 참석해보고 이런 아픈 쪽으로 정보를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남편은 반대하는데, 달리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요즘 마스크에서 자꾸 2세, 3세까지 이게 영향이 있다 하니까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은 혹시나 결혼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지장이 있을까봐, 우리 부부는 둘이 다 그런 상태니까 그걸 염려를 해서 자기는 일체 여기 등록을 안 하겠대요.

나는 다른 사람들 하고 교류를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은 반대를 하죠. 그래 큰 혜택도 못 보면서 괜히 알려진다고. 만약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도 정보가 원체 지금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엄청 의심을 해요.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것보다도

다만 진료권이러도 있으면 우리도 아플 때 병원 가면 혜택 볼 수 있는 그 여건이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 2세들도 일본처럼 정부에서라든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죠. 경제적으로나 첫째는 의료 쪽으로나, 뭐 그런 혜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램이지요. 아무래도 1세가 아프다 보니까 2세들도 지금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배움도 못 배웠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삶이 좀 고달프다 아납니까. 그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감사할 따름이지요.

일본에는 지금 아마 원폭피해 대상자들한테 모든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그 나라 일본 전쟁에 우리 국민이 가 가지고 그리 피해를 본 거니까 일본정부한테 일본 국민들처럼 우리도 같은 보상을 해줬으면 해요. 의료지원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앞으로는 원폭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세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나는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먼저 대구 가서 어떤 분도 보니까 많이 안 좋아요, 다리도 뻘고 앉으시고 그렇던데. 그 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2세가 이만큼 많은데 만약에 정부에서 혜택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합천까지 줄을 세워도 모자랄 거라면서, 그런데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모두 다 쉬쉬하고 아무도 안 나타난다고. 그래 아픔을 겪고 속으로만 자기네들이 그걸 참고 다 지금 숨어있는 상태고.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서. 사실은 그렇고요. 내 역시 어디 가서 원폭피해 2세다, 이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 하나 뿐인 거 같으며는 그렇다고 당당하게 어디 병원에 가서라도 얘기를 하고 진료를 받고 싶은데 지금 원체 또 언론에서 2세, 3세, 몇 세까지 그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니까 특히나 더 그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 혹시나 의료기록상에도 그게 남을까봐.

그러니 정부에서 우리 2세들도 좀, 이제 1세 못지않게…… 다른 대상자들은 2세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상이군인이나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어디 참 취업하는 데라든가 가산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2세까지는 다 모두 보험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게 좀 있었으면…….

내가 배움이 짧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너무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 같고요. 지금도 조금은 알지마는 알고 나서도 아직까지 드러내놓고 얘기할 그게 못되니까 어디 자랑할 그것도 못되고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내 신상만 밝혀지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혜택도 못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게 되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쉬쉬하는 상태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네요.

나는 살면서 늘 건강 문제였어요. 첫째는 부모님들이 그래 어렵게,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첫째 못 배웠으니까 더 사회 진출을 못하고, 그만큼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 형제들도 다 어렵게 살고 모든 게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원망을 했죠. 친구들은 다 학교 공부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랄 적엔 원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원망을 해도 그때는 아버지가 원폭피해라서 일을 못하신다, 이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 하시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니까 우리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못 가는가 보다, 그래 원망을 했지.

지금이야 다 지난 얘기니까 아버지도 안됐고, 한편 국가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까지 가서 당한 게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럽죠. 남의 나라 전쟁에서 징용까지 가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됐

다 하니까. 평생을 저렇게 건강이 안 좋게 지내시는데 한편으로 안됐고, 한편으로 안 된 게 아니라 평생 안 된 마음이죠. 내내 병원에서 약으로 약으로 사시니까, 지금도 약을 한달 분 지으면 어디 출입을 하실라면 약이 한 가마니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시면 우리가 부모들 원망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오빠 이종기씨의 기억

강제징용, 피폭, 아버지

피폭 당시 연세가 스물 세 살인가 그랬을 텐데, 한국에는 돌아온 날짜가 45년 12월 15일. 일본에 남은 식구는 아무도 없지. 강제징용으로 붙잡히기. 우리는 강제징용이다 하는 그것도 몰랐는데 작년 11월 초에 합천 지부에 가보니까 9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원폭피해자 진료증 그거 원본을 들춰보니까 징용으로 써놨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징용이고. 그동안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부끄럽다고 그런 말 해주지도 안했어. 아무 보상이나 혜택도 안 주지, 돈이나 좀 준다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한번 생각해보겠지마는. 좋은 일 같으면 이야기를 할 텐데.

원폭피해자 진료증도 다른 사람들은 60년도, 70년도에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세 번 올리고, 네 번 올리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안 해줬어. 글은 모르제,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갑다, 그래 있다가 우째우째 해가지고 91년도에 증을 만들었어. 진료증을 받고 혜택이라고는 몸 아파가지고 의료보험 되는 건데, 나머지는 개인부담도 있고, 몇 프론가 원폭피해자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며는 치료비 조금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있었지. 일본서 나오는 건강수첩이란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자체를 몰랐어. 알고나서 사유서를, 노인네가 일본에 어떻게 갔다 온 거를 몇 마디 듣고 그거를 작년 11월 달에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해가지고 특수사업소 원폭피해자 담당자한테로 부쳤어. 그래 담당자가 일본 나가사키로 부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건강수첩 없는 사유서를 써 보냈더니 일본에서 심사를 해서 전화가 왔어. 직접 일본사람이 아가씨 한분하고 건강수첩 담당자 남자 분 한분하고 우리나라 통역하는 아가씨하고 와서 6월 1일 오후 1시에 합천복지회관에서 같이 면담을 했어. 그런데 노인네가 치매도 있고 기억력도 없고 하니까 서류하고 말

하고 행동하는 게 틀려요. 틀려서 옳게 뭐 됐다, 안됐다 확답을 못 받고.

그동안은 증인이 없어서 수첩을 못하고, 지금 증인을 찾으라하니까 다 세상 버려버렸고. 알만한 사람은 한 칠십 된 사람은 집에 어른하고 열다섯 살이나 이래 차이 나니까 그때 당시 쯤만해서 모르제, 모르는 사람이 우찌 증인을 서 줘요, 하면서 대답들이 그래.

피폭 당시에 아버지가 제지공장이라 하는 곳에 일을 할라고 있었는데 아침 작업 할라니까 8시 쯤에 빵 소리가 두 번인가 나길래 조금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감독관들은 나와서 얼른 그늘진 곳으로 산이나 들이나 다리 밑이나 피해라 해가지고, 그래 피한 게 좀 작게 당했고. 많이 당한 사람은 눈이 빠져가 죽은 사람, 다리가 날아간 사람, 히로시마 시내 천지가 불바다가 되고 잿덩어리가 되고, 약이라 해봤자 감자, 조약 같은 거 두드려 붙여가지고 천막 쳐놓고 알곳은 이동의사들이나 오고,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군인들이니 경찰들이니 일본사람 그런 사람 와서 감독을 해주고, 밥도 주먹밥을 갖다 주면 그런 거를 끼니로 삼고, 우리 노인네 외삼촌도 세상 버려버리고 있을 데도 없고, 그래서 8월 15일에 해방은 됐지만 돈이 있어야 나오지, 공장도 불 타버렸고 잿더미가 돼버렸고, 그래 밥을 얻어 먹다 얻어 먹다 여비를 좀 벌여가지고 12월 달에 나왔어.

아버지가 처음에 징용 갈 때는 제지공장 그리로 안 갔는데 나고야로 갔는데 나고야 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바닷가 항구 조선소 같은 게 있던 모양이지. 일이 어떻게 힘들고 밥도 작게 주고 한방에 알곳은 다대미 방에 열댓씩 넣고 이래서, 2층인데 알곳은 밑에는 공장 일하고 2층에 다 방에 열댓명이 옳게 씻을 데도 없고, 여름에 붙잡혀갔는데 배도 고프고 일 안하면 반박이라도 하며는 패죽일라고 달려들고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래 거기서 일년 반인가 있다가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집으로
올 거라고 한 2,30명 밤에 야반도주를 해서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온 게
아버지는 히로시마로 왔지. 나고야 거기서는 무보수였으니까 히로시마에
서 돈 좀 벌어들 거라 이래한 게 피폭 당해놓으니 돈이고 나발이고 있어
야 오지. 그래 12월까지 있으면서 품을 팔았는고 우쨌는고.

아버지처럼 억울한 1세를 위하여

1세들도 건강수첩을 안 가진 자도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해줘라, 증명만 있으면 해줘라, 수첩이 없더라도 간 근거만 있
으면 해줘라. 장부를 일본 가서 찾든지 우리나라에서 찾든지. 즈그한테
득이 안 오니까 안 찾지, 개인적으로 서울에 국회의원 장관이 들이 오는
거 같으면 찾는다고요. 우에 사람이, 대통령이 시키보이소. 대통령 걸 찾
아들라하면 찾아줄인데 우리 농민이 가 가지고 불쌍한 거지같은 새끼들
이 찾아들라하면 찾아주겠습니까. 즈그 손해 나는데, 시간 뺏기고. 건강
수첩도 원칙을 따지자면 소급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이
거 증인 세우고 할 것도 없어. 일본사람이 와서 조사했는데 이거 진료증
해주라 해서 우리나라서 만들어 줬는데 왜 건강수첩을 안 해줘.

다시는 우리나라가 조그만 땅덩어리지마는 말로만 세계 몇 위니 하지
말고 일본하고 우쨌든가 타협이나 잘해가지고 1세나 2세나 참 여생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어도 한이나 안되게 건강수첩 없는 사람 국적
싸움을 하든지, 2세까지라도. 2세들은 진료증이나 좀 만들어주고, 1세들
해봤자 건강수첩 없는 사람들 몇 천 명도 안 되고 몇 백 명도 안 되니까
가나 안 가나 그거라도 해줬으면 한이라도 반치라도 풀리고…….



내 죽거든 뼈도 화장도 하지 말고 쓰레기 봉지 넣어 내버려라

정 속 희

2005년 6월 24일 대구 자택에서 정속희 씨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정속희 씨는 40세로 피폭 1세는 부친(정덕일)이고 1999년에 사망하셨다. 2남 2녀 중 장녀로, 남동생 정연현 씨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스스로 부친을 많이 닮았다 생각하는 정속희 씨는 2000년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이란 병명으로 양쪽 다리에 인공 뼈를 넣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현재 대구에서 남편과 거주하고 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수술 후에도 재수술의 두려움과 끝없는 통증, 병으로 악화된 생활고 등에 시달리면서 딸이 자신처럼 아플까봐 걱정이 많은 날을 보내는 어머니이다. 그리고 일본에 치료 받으러 간 아버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돌아온 결과가 된 데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참을 수 없는 딸이기도 하다. 피폭 1세인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함천에서 인터뷰한 모친 안해순 씨의 구술을 뒤에 실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몇 달 안 남았구마. 2000년도, 21세기 될라 하면 몇 달 안 남았구마. 그 때까지만 살아 계시가, 우짜든 이천년도 넘깁시다, 넘깁시다' 그랬는데, 그래그래 했는데. 일본 갔다 와서…… 일본 안 갔으면 2000년

도 넘겼어.

우리 아버지는 네 살 땀가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했어요. 그 때 피폭 당시에 올 아버지 위에 큰고모가 아홉 살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그만 시체도 못 찾았고 작은 고모는 한국 나오셔서 살았는데 서른여덟쯤에 돌아가셨어요. 막내고모는 인제 돌이나 지났으니까, 등에 얽힌 채로 피폭을 맞았는데 그 분도 지금 살아계시기야 하지마는 당뇨 합병증이 와서 혼자서 다니지도 못하고,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버렸다 하대요. 그래, 할머니가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식들 데리고 합천 고향으로 나왔지.

아버지가 편찮기 시작하신 게…… 처음에는 기침을 한달 정도 했어요. 약을 사먹어도 안되고. 합천 고려병원에 아버지 친구 분이 과장으로 계신데 어느 날 저녁에 주사나 한 대 맞아보까 싶어서 찾아가셨어. 갔더니 그 친구 분이 온 김에 사진이나 합 찍어놓고 가라 해서, 그래 사진을 찍었는데 폐암 말기라는 거라. 그 분이 차마 아버지한테는 연락을 못하고 가족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대요.

그 때 내가 차도 없는 중에 아는 형부를 붙잡고 부탁을 해가, 우리 아버지 그 지경이 되고서도 병원 안 갈 거라고 내한테 욕을, 욕을 하시는 거를 달래고 싸우고 해서 그 형부 차로 영대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합천서 사진 찍었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 해. 얼마 못 견디다, 이러는 걸 항암치료 받는 내내 엄마랑 우리 형제들이 산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촌에 인동초나 민들레 같은 조약을 구해가 잡숫게 했지. 나는 지금 다리 아픈 게 그때 벌써 시작이 돼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는데, 그 다리로 언덕 밖에 민들레 캐러 간다고 가다가 구르기도 많이 구르고. 그래 해서 좀 낫더니마는 뿌리가 안 뽑히고 덩어리가 있으니 재발해가 당뇨가 와 버리더라고. 합

병증이 오고.

그래도 한국에 계실 적에는, 일본 들어가기 전에는, 아파서 병원 신세는 저도 변소에는 혼자 살살 짚고 다니셨어요. 밥은 당신 손으로 떠 잡숫고, 항암치료 하고도 걸어오셨어요. 입원하시고 치료받고 약 타서 이렇게 걸어오시던 분이…… 일은 못해도 한 번씩 오토바이 타고 논에 나가가 구경 다니시고 했는데. 일본 갔다 와서 그만 식물인간 돼버렸잖아요.

일본에 가면, 거기 가면 살릴까 싶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냈는데 일주일 만엔가 보름 만엔가 혼수상태가 안 나왔습니까.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덕일 씨는 안 되니까 도로 보낸다고. 엄마하고 내하고 합천 원폭 지부장님하고 앰블란스에 산소기까지 준비를 해서 부산까지 갔지요. 비행기가 내리고 사람을 끌고 나오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모두 가슴을 친다!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고. 집에 와서 처음에 기저귀를 안 차니까 볼일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기저귀를 채웠잖아. 채우는데 보니 정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항문이 벌어졌어요. 사람 몸을 못 찌니까 그리로 기계를 집어넣어가 검사를 다 했다 이거지. 그러니 똥이 나오는 줄을 아나, 들어가는 줄을 아나. 일본 갔다 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 그거를 모르고, 그 길로 한번 못 일어나보고 가셨어요. 그 길로 가서버렸어.

일본 사람 대단하다 생각해. 즈그는 1주 2주 거처가 사람 실험 다하고, 다 했으니 보낸 거고. 우리는 실험 대상 밖에 안 됐고, 죽어가는 사람 한 번 더 죽인 꼴 밖에 안 되고. 즈그가 해야 하는 목적이 있으면 사람이든 뭐든 안 가리고 다 하니깐, 정말 무섭고 독한 사람들이라. 역장이 딱 무너진다, 그 생각만 하면…….